

한국사회 '술 문화' 확 변했다

■世窓에 비친 세태 '술 권하는 사회'서 '술 안권하는 사회'



이규섭
편집위원·전 국민일보
논설위원

현진건의 단편소설 '술 권하는 사회'(1921년)는 일제 강점기 지식인의 무력감과 고뇌를 '술'이라는 상징으로 고발한 작품이다. 식자들은 술 마시기 합리화 명분으로 활용했다. "내가 술을 마시고 싶어 마시는 게 아니라, 이 사회가 나를 술 마시게 한다"고 예들렸다.

언론인은 술을 많이 마시는 직업에 속한다. 취재 경쟁과 마감 압박의 스트레스를 술로 푸는 경향이 많았다. 음주문화가 자유롭고 관대한 편이다. 마감 후 짬짬이 시간에 낮술을 거리낌 없이 마셨다. 이름깨나 날리던 선배 논객들 가운데는 "술을 걸쳐야 글이 잘 쓰여 진다"며 낮에도 얼굴이 불과파하기 일쑤다. 퇴근 후 주요 출입처 관계자와의 술자리는 신뢰 형성을 넘어 정보를 얻는 기회로 통용됐다.

언론계 음주문화도 세대가 바뀌면서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신세대들은 상사나 선배의 강권에 못 이겨 술자리에 참석해 "라떼(나 때는 말이야)"를 들던 세대와는 다르다. 자기주장이 뚜렷하여 데스크의 술자리 제의도 "선약이 있다"며 단호하게 거절한다. "술 잘 마시는 기자가 취재도 잘 한다"는 근거가 모호한 주장도 사라졌다. 술자리에서 발생하기 쉬운 언어폭력과 성희롱도 회식문화에 찬물을 끼얹는 요인이 됐다.

음주문화 트렌드가 '술 권하는 사회'에서 '술 안 마시는 사회'로 변하는 추세다. 회식 등 단체모임이 줄고 건강 중시 패턴으로 분위기가 바뀌



국내 최초 세계적인 논알코올 주류와 음료 100여 종류를 취급하는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아티스트보틀클럽'. <사진 이규섭>

었다. 금주와 절주의 견인차는 2030세대다. 대학가 상권인 홍대·신촌거리엔 문 닫은 호프·간이주점이 늘었다. 술을 덜 마신다는 반증이다. 서울시 상권 분석 서비스에 따르면 최근 2년 새 서울에서만 호프집 2034개 업소(12.4%)가 폐업했다. 대학이 몰려 있는 마포구가 242개로 가장 많다. 강남구 162개, 송파구 121개, 강서구 118개 등이다.

우리나라 첫 수제 맥주 레스토랑으로 젊은 직장인들이 즐겨 찾던 서울 종각 부근 '0 호프'집도 지난해 5월, 23년 만에 문을 닫았다. 수제 맥주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급성장했으나 수요가 줄면서 도산위기에 처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수제 맥주 시장을 대표하는 양조 업체 중 하나였던 어메이징브루잉컴퍼니가 지난해 12월 양조장 겸 펍인 성수동 매장 영업을 종료한 뒤 파산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한다. 수제맥주 프랜차이즈 브롱스를 운영하던 와이브루어리도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서울 도심과 수도권에 100여 개 이상 매장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현재 매장 4곳만 남은 상

태다. MZ세대들이 도수 낮은 술이나 논알코올 술을 선호하는 영향도 크다. 음주문화 변화의 중심에는 '소버 큐리어스(Sober Curious)'와 '헬스 플레저(Healthy Pleasure)'라는 새로운 흐름이 있다. '소버 큐리어스'는 술을 마시지 않는 삶에 호기심을 갖고 의도적으로 술을 줄이거나 끊는 라이프스타일이다. 미국 MZ세대 대부분 소버 큐리어스를 추구하며, 두 사람 중

하며 소주를 주로 마셨다고 한다. 소주가 싫어 논알코올 술을 직구해서 마시다가 창업하게 됐다고 한다. 주 고객은 2030세대와 임산부 등 젊은 층이 많다고 한다. 프랑스 산 논알코올 화이트와인 한 병을 주문해 시음해봤다. 일반 와인처럼 풍부한 맛과 향이 느껴져 구분하기 쉽지 않다. 논알코올 맥주는 보편화 되어 편의점에서 쉽게 살 수 있다.

주류업계도 변화의 바람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해 말 크러시(200)·클라우드(200) 생맥주 제품 2종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2024년 5월 식당에서 논알코올 음료를 팔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자 논알코올 음료 '카스 0.0' 병 제품을 음식점에 출시한다. 개정안 시행 이전까지는 종합 주류도매업자가 알코올 도수 1% 이상의 주류만 유통할 수 있었다. 논알코올 맥주는 주류가

MZ세대, 회식 꺼리고 '논 알코올' 즐겨

한 명은 비주류(非酒類)라는 여론조사도 나왔다. '헬스 플레저'는 건강을 챙기는 것으로 삶의 의미와 즐거움을 찾는 소비 형태다. MG세대들의 음주문화 라이프 스타일은 절제와 선택적 소비다. 취하지 않는 상태에서 건강을 챙기며 즐긴다. 대안으로 떠오른 게 무알코올·논알코올 술이다.

서울 연남동에 위치한 '아티스트보틀클럽'은 논알코올 맥주와 와인, 스파클링티, 스피릿 등 100여종류를 비치한 매장이다. 감각적인 인테리어와 아티스틱한 분위기다. 이재범(31) 대표는 "논알코올 전문 숭은 국내에서 유일하다"고 말한다. 연극영화를 전공한 그는 광고회사에서 7년간 근무

아니어서 주류세가 붙지 않는다. 시중 판매가를 저렴하게 책정할 수 있어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한다. '무알코올'과 '논알코올'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지만 근본적인 차이는 약간 있다. 무알코올맥주는 알코올 함량이 완전히 0%인 제품이다. 많은 양을 섭취해도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이다. 무알코올맥주는 함량이 0%이므로 음주단속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논알코올 맥주는 많이 마시면 기준치에 근접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회식자리가 줄고 논알코올 술을 마시는 인구가 늘자 대리운전 업계도 불황의 불뚱을 맞았다.☞

윤석열 내란죄 1심 무기징역 선고

‘사형’ VS ‘무죄’ 국민분열 양극화



최명우
전 동아일보 편집위원

2026년 2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특검으로부터 ‘사형’구형을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이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국회 봉쇄·정치인 체포조 편성 등이 모두 폭동에 해당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우두머리 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그러나 이날 1심 문제의 초점은 무기징역이 아니라 사형이나 무죄냐의 양극화 결론이었다.

죽이려고 하는 자, 살리려고 하는 자의 숙명적 명암의 이중주는 결국 국민들을 혼돈에 빠뜨리고 극심한 분열 양극화 현상을 불렀다. 이럴 때 세익스피어 햄릿의 명대사가 호출된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였다.”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지난해 4월 시작된 ‘내란 우두머리’ 형사재판이 43번의 공판, 161명의 증인을 거쳐 내린 결론이었다. 윤 전 대통령이 왜, 어떻게 비상계엄을 결심해 실행했고 그 중 어떤 행동이 ‘내란죄’로 인정됐는지, 그 설명이 1,300쪽에 달하는 1심 판결문에 담겼다.

지귀연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로 강하게 결심

한 날을 계엄 선포 이틀 전인 2024년 12월 1일로 봤다.

재판부는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던 국회 상황을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이 무리한 국무위원 탄핵 소추 시도와 예산안 삭감 등이 반복되자 대통령과 정부의 활동이 무력화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이 ‘더는 참을 수 없다,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한 것이 이 사건의 실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내란 특검 측이 ‘계엄 계획’ 시작을 2023년 10월, 적어도 계엄 1년 전으로 본 것과는 다른 판단이었다.

특검은 윤석열이 단지 야당 때문이 아니라 장기 독재를 위해 계엄을 오래 준비했다는 수사 결과를 내놨지만 재판부는 이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비상 대권’ 관련 발언을 들었다는 주변인들의 증언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허술하고 우발적이라고 판단하고 그 절차상의 하자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 부분은 피고인에 유리한 측면으로 보아는 듯했다.

그럼에도 ‘비상계엄 선포’는 곧바로 ‘내란’인가하는 대목에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의 이유로 주장해 온 ‘야당 탓’ ‘부정선거 탓’은 비상계엄의 요건일 수 없다고 명시했다.

또한 특검이 제시한 ‘대통령도 반역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영국의 찰스 1세가 군을 끌고 국회에 난입해 의회를 강제로 해산시

켰다가 국가에 대한 반역죄로 처형됐다는 사례를 호출했다.

대통령이라도,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강압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를 하면 ‘내란’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행정부 수반이 군 통수권을 이용해 의회를 점령하거나 의원을 체포해 국회 기능을 상당기간 마비시키려 했다면, 이는 국회의 권능을 침해하려는 국헌문란 목적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결정적 증거로 계엄 포고령을 들었다.

그 포고령은 ‘국회·정당·정치 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처단’하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결국 그 수단으로 군을 국회에 투입한 것이 재판부 내란 결정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지귀연 재판부의 이 기막힌 내란죄 무기징역 선고는 즉각 보수와 진보 양측으로부터 극심한 반발을 샀다.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로 구성된 보수 단체들은 ‘계엄은 정당했다’, ‘계엄 합법 윤석열 무죄’ 등의 구호를 외치며 무기징역 선고에 반발했다. 그런가 하면 진보 측에서는 윤석열의 ‘사형’이 정답이라며 극형을 요구했다.

재판부 판결문을 두고 “마지막 내란을 인정했지만 내란이었다는 몇 가지 표현을 제외하고는 모두 내란범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점철돼 있다”며 “조희대 탄핵과 사법개혁, 내

마무리시 권영섭



란 청산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하게는 지귀연 판결문을 ‘판결로 포장한 국민 우롱이자 기만,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사형’이 마땅하다고 했다. 어쩌다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된 것일까.☞

‘BTS 컴백 라이브’ 광화문 들썩

티켓 무료...예매 전쟁

보이그룹 방탄소년단, BTS가 3월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 무대를 펼친다.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 공연에 들썩이는 광화문 일대. 새로이 중계 전광판이 주목받고 있다.

BTS가 3년9개월 만에 새 앨범 무대를 선보이는 자리인 만큼, 티켓확보부터 전쟁을 방불케 하는 열전이 펼쳐졌다. 티켓은 전석무료. 그러나 지난 2월 23일부터 예매가 시작돼 구입행운을 잡은 팬들은 환호를 외치며 흥분의 잠 못드는 밤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예매 좌석은 메인 무대를 바라보고 가장 우측에 위치한 스탠딩석과 그 뒤쪽부터 이순신 장군 동상

앞까지 배치된 지정석. 돌출 무대를 둘러싼 스탠딩석은 BTS 정규 5집 ‘아리랑’ 예약 구매자 가운데 이벤트에 응모한 2천 명을 선정해 제공했다.

그러나 이번 BTS 공연의 예매티켓을 구하지 못했다고해서 크게 실망할 필요는 없다.

동아일보, 코리아나호텔 등 광화문 광장 주변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으로도 공연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공연 전후 서울광장과 여의도공원 등에서는 팬들을 위한 부대행사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BTS 컴백 공연에는 약 20만명 이상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광화문 광장의 수용 인원이 1만8000여명이

라면 그 10배가 넘는 인원이 광화문 일대에서 공연에 접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이다.

오랜만의 BTS 공연이라 해외 팬들도 서울을 향하고 있다.

‘한국판 타임스스퀘어’로 진화한 광화문 일대는 대형 전광판의 신세계를 내보인다. 이 공간이 전 세계 BTS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최적의 광고 매체가 될 것이란 기대도 만만치 않다.

BTS 효과는 광화문 폭발에 이어 앞으로 계속 확산될 전망이다. 4월에는 경기 고양, 6월에는 부산에서 추가로 콘서트가 열리기 때문이다.☞

애덤 스미스 '국부론' 출간 250주년

'보이지 않는 손' 혁명적 이론 펼쳤다



서옥식
본회 부회장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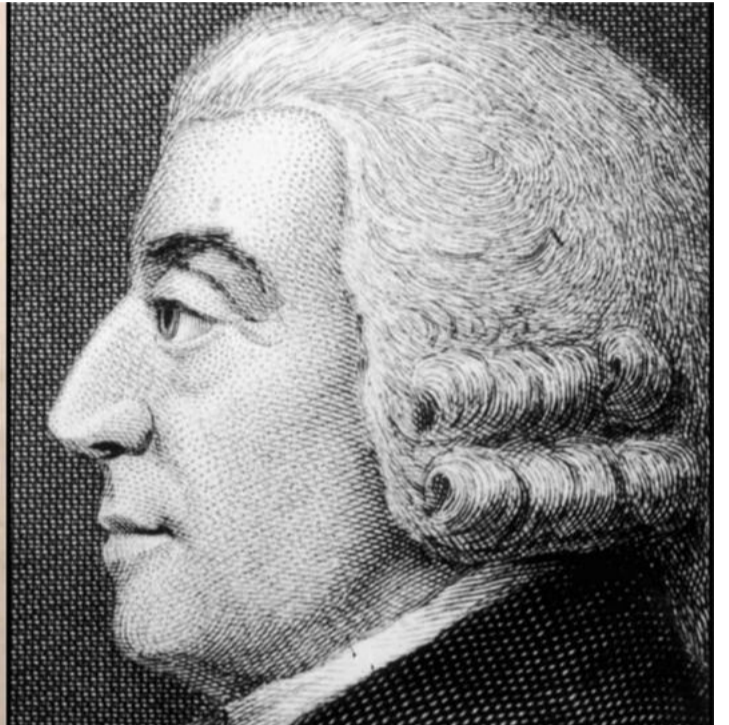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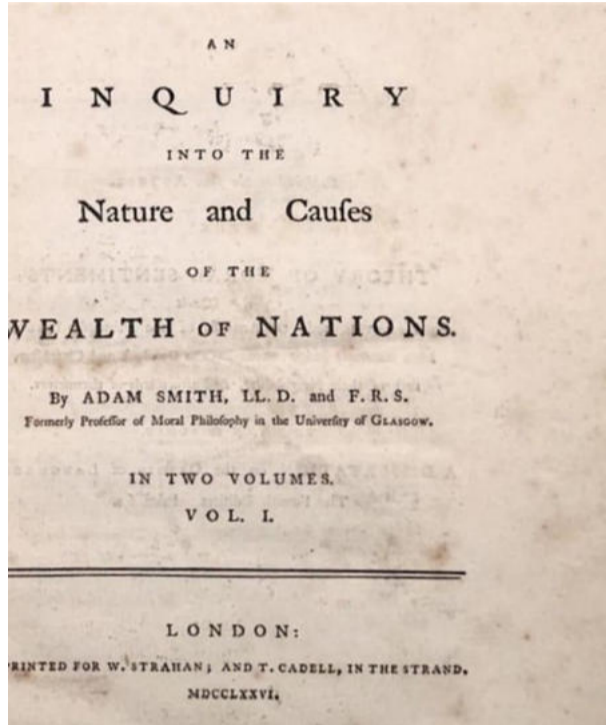
3월9일은 자본주의 경제학의 바이블로 불리는 '국부론(國富論·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출간 250주년이 되는 날. 이날을 맞아 전 세계의 경제학회와 경제단체들은 기념학술회의 등 스미스(1723~1790)의 업적과 공로를 기리고 재평가하는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스코틀랜드 글래스고大 경제학 교수와 총장을 역임하던 애덤 스미스에 의해 1776년 출간된 1천여 쪽 분량의 방대한 이 책은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세상의 경제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국가의 부는 왕실 창고에 쌓인 금과 은의 양으로 결정된다고 믿었던 중상주의(mercantilism)시대에, 스미스는 이 책을 통해 자유경쟁과 분업(division of labour), 시장매커니즘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 사회 전체의 부를 창출하고 증진시킨다는 혁명적인 이론을 펼쳤다. 이 위대한 고전은 오늘날 자유시장경제의 초석이 되었으며, 그 중심에는 '보이지 않는 손(An Invisible Hand)'이라는 시장의 자율적인 질서 원리가 자리 잡고 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국부론이 한 국가의 부(富)를 다루는 저작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이 책은 국가의 부가 아니라 개인들의 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고찰한 책이다. 그래서 민부론(民富論)이 더 어울리는 번역이며 국부론은 오역이란 주장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5편으로 된 국부론의 제1편은 '분업'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된다. 그는 분업이 노동 생산성을 얼마나 비약적으로 향상시키는지 설명하기 위해, 당시 흔했던 작은 핀(pin) 공장을 생생한 예로 들었다.

만약 어떤 노동자가 핀을 만드는 모든 공정을 혼자 처리한다면 아무리 숙련공이라도 하루에 1개 내지 10개의 핀 밖에 만들지 못하나 10명이 제조공정을 18개의 전문 단계로 나누어 협업하면 생산량 증가에 기적이 일어



'국부론' 표지와 애덤 스미스

나 1인당 4800개씩 총 4만 8000개를 생산하게 된다는 것이다.

국부론의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은 자유시장 개념이다. 스미스는 정부가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하는 대신, 시장

에 스미스를 약육강식의 자본주의자, 시장만능주의자, 자유방임주의(laissez-faire)로 만들어 버렸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이런 용어들을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으며, 언제나

에서 경제 활동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 자체가 도덕의 한 형태라고 확신하면서 인간은 자기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기애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기본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기주

자유경쟁과 분업 통해 사회전체 부 창출 정부개입보다 시장경쟁으로 효율적 분배

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 분배가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이러한 시장 매커니즘과 관련, 그의 '보이지 않는 손'이란 표현은 국부론의 한 번을 포함, 그의 저작물에서 모두 3번 등장하는 데 이는 스미스의 사상을 상징하는 가장 유명하고도 강력한 비유이다.

이 '보이지 않는 손'의 원동력은 놀랍게도 인간의 '자기 이익(self-interest)' 개념에서 출발한다. 스미스는 이 개념을 설명하기 "우리가 저녁 식사를 기대하는 것은 정육점 주인, 양조장 주인, 빵집 주인의 자비심 덕분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미스의 유명한 '자기 이익' 개념, 즉 '자기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일을 한다'는 이 말은 안타깝게도 국내 거의 모든 서적에 '이기심'으로 오역돼 있다. 'self-interest'를 이타심(altruism)의 반대어인 이기심으로만 번역하는 바

'self-interest', 그리고 유사어로 'self-love'(자애심)란 말을 사용했다.

따라서 스미스가 '정부 개입을 전면적으로 반대했다'거나 '시장만능주의를 주장했다'는 인식은 정확하지 않다. 실제로 스미스는 정부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시장이 항상 최선의 결과를 내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독점, 불공정 거래, 공공재 문제 등은 시장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부문은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적 자유가 소수에게만 집중될 경우 사회 전체의 부의 분배가 왜곡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그는 사회간접시설 구축, 공공교육, 국방, 치안 유지 등과 같은 공공 서비스를 정부가 제공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는 오늘날 복지국가의 기본 개념과도 상통하는 개념이다.

스미스는 또 다른 저서 '도덕감정론'(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의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다.

지금 경제학에서 다루는 자본, 가격, 노동, 임금, 이윤, 지대(地代), 투자, 자유무역 개념은 사실상 스미스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히 그의 자유무역이론은 데이비드 리카도(David Ricardo, 1772~1823)의 비교우위론을 거쳐 오늘날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발전했으며 노동가치설 역시 리카도에 의해 확립된 후 지금도 생산의 주요 요소 하나로 유효하다. 물론 국부론이 오늘날의 경제학을 모두 설명하지는 못한다.

국부론은 복잡한 가격형성이나 가치론(효용, 만족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기업가 정신의 역할, 경제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다루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다. 한가지 안타까운 것은 노동가치설이 마르크스 경제학에서 말하는 '잉여 가치설'(임금착취)로 변해됐다는 점이다.☞

美, 관세 재인상 요구...한국 '발등의 불'

경제 포커스 **트럼프, 국회 입법 지연에 25% 밝혀**



조희곤
본회 편집위원
전 내외경제 논설위원

미국의 관세 재인상 요구에 한국정부 대책 마련 부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습적 '관세 재인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우리정부가 관세 인상 저지를 위해 총력전에 나서고 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외교·통상·안보라인을 총 동원해 미국의 관세 인상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미국 측으로부터 관세 인상 방침 철회나 유예 같은 답변을 얻어내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내부적으로 대한(對韓)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올리기 위한 관보 게재 등 행정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한국으로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미국은 한 술 더 떠 이번 기회에 자국 기업의 현안인 비관세 장벽 철폐까지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정부가 천신만고 끝에 이끌어낸 통상·안보 빅딜이 원점으로 회귀한 모양새다.

트럼프, 관세 25% 재인상 천명...한국 국회의 입법 지연 문제 삼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26일 소셜 미디어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우리가 한국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기존 15%에서 25%로 인상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인상 이유로 "한국국회가 한미 양국이 합의한 관세협정을 담보하기 위한 입법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에 따라 나는 자동차·목재·의약품 등을 포함한 모든 대(對) 한국 상호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해당 '합의'는 2025년 10월 경주에서 열렸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간 회담 후 체결한 것이다. 이 같은 관세 합의는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꽤 괜찮은 협상 조건을 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협정에 따라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춰 설정했고, 한국은 그 대가로 조선업에 1500억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1월29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 회의실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통상현안을 논의했다. (사진제공·산업통상부)

달러를 포함, 총 3500억 달러를 10년에 걸쳐 미국에 투자하기로 약속했다. 우리정부는 이번 상황(관세 재인상)에 대해 '합의 파기'가 아니라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미국 정부도 공식적으로 합의 파기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

여야 합의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여기에는 지난해 11월 14일 한·미 양국 정부가 체결한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이행과 관련한 법률안' 심사를 위해 국회법 제44조에 따라 특위를 설치하는 내용

미국이 제기하고 있는 비관세 장벽은 크게 농축산물과 디지털 규제 두 축으로 요약된다. 농축산물의 경우 우리 정부는 식량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디지털 규제는 구글에 대한 정밀 지도 허용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추진 중단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우리 정부로서는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운 힘든 이슈들이다. 그러나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는 현재 가동 중단 상태로 아직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비관세 장벽 협상은 빅딜이 가능했던 지난해 관세 협상보다 훨씬 많은 쟁점을 다뤄야 하고, 분야별로 세부적인 내용까지 기술적으로 합의해야 한다.

기업 피해 최소화 위한 미국의 정치·경제적 상황 파악 시급
정부는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

대미 수출 큰 타격, 국회 관련 입법 속도전 美, 관세 별도로 비관세 장벽 철폐 압박

25% 관세 현실화 되면 우리기업 타격 불가피...국회 관련입법 속도전

한국에 대한 관세가 인상되면 국내 기업들은 일본이나 유럽연합(EU) 등 경쟁국보다 관세가 높아져 수출 등에서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대미 수출 주력인 자동차의 경우 현대차·기아는 미국의 25% 관세로 지난해 2·3분기에만 총 4조6천억 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이와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6단체는 최근 공동성명을 내고 "미국의 25% 관세 부과가 현실화할 경우 자동차, 바이오 등 산업 전반의 대미 수출에 막대한 타격이 초래될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정부는 국회 입법 활동 등을 미국 측에 설명하며 관세 인상 조치의 철회나 최소한 1~2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받기 위해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의 근거로 제시한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문제는 현재 국회에서 여야가 특별위원회 설치에 합의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국회는 최근 본회의를 열어

을 담고 있다. 여야는 특위 활동 기간인 이달 9일 이전에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구체적인 투자 프로젝트 선정 및 투자 이행 등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실무체널이 가동되고 있다.

미국, 관세 재인상과 별도로 비관세 장벽 철폐 압박

미국은 관세 재인상과는 별개로 비관세 장벽문제를 거론하며 한국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최근 미국을 방문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한국이 대미 전략 투자 뿐 아니라 비관세 장벽 관련 시안에서도 진전된 입장을 조속히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밝혀 한국이 비관세 장벽 협상에서도 상당 부분 양보 압박을 받고 있음을 시사했다. 미국 정부의 관세 인상 조치는 순전히 '입법 지연'이라는 게 정부 공식 입장이었는데, 이와는 별개로 비관세 장벽 철폐도 요구 조건에 담고 있다는 뜻이다.

고 새로운 협상 국면에서 국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이번 관세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국내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협상에 나서야 하고, 단순한 관세율 조정을 넘어 미래 지향적인 경제 협력 방안으로 나아가야 한다. 일본은 별도의 법안 없이 프로젝트 중심으로 투자를 진행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입법'이라는 족쇄가 필요한 지에 대해서도 연구해 볼 일이다. 향간에서는 개인정보 유출로 논란을 빚고 있는 쿠팡에 대한 우리정부의 규제가 미국의 관세 재인상 촉발 원인 중 하나라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 미국 대법원은 이달 중순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비해 가동 중인 정부의 시나리오별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이 큰 효과를 보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국민의힘, 통합으로 보수세력 재건해야

심리적 분당 상태...인재영입 등 정치공간 확장



김 화
본회 이사·편집위원
전 경향신문 편집위원

아무리 국민주권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라도 일반국민은 선거 때 1인 1표 주권행사 이외에는 별다른 권리도 없고 국정에 직접 참여할 기회도 없다. 그 대신 이념과 국정운영 방향이 같은 사람들의 집단인 정당이 일반 국민들을 대신해서 국정을 담당한다 그래서 대의정치, 정당정치라고 부른다.

여당과 야당이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국정을 논하고 대통령과 각료들이 사심을 버리고 국정을 펼치면 안보는 튼튼하고, 경제는 성장하고 민생은 편안하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상황은 혼돈 그 자체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대화와 타협의 정치는 실종되고 입법부인 국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한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입법 폭주로 사법부까지 협박하며 삼권분립 원칙마저 와해시키려 하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여당으로부터 존재 자체를 무시당한 수모를 겪고 있고, 겨우 개헌저지선을 아슬하게 넘은 106석으로 필리버스터 외엔 속수 무책이다. 안보는 메아리 없는 대북 유화정책으로 총 대신 삼단봉 지급과 국방비 지급 지연 등으로 국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 경제는 세계 9위에서 15위로 추락했고, 민생은 물가고로 허덕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당이 역기능 높에 빠지고 정치인이 부패비리 사육을 탐닉하면 국정은 파탄나고 국민들은 정치와 정치인을 불신한다.

나라 사정이 이런데도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 둘 다 심한 내홍과 분열로 국정보다 당권장악에 영일이 없다. 여당인 민주당은 정청래 당대표의 2차 특검 후보로 대북송금 수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김성태 전 쌍방울회장의 변호인 추천과 조국혁신당과 합당 발표를 놓고 이재명 대통령의 '친명'과와 정청래 대표의 '친청'과 간 생사를 걸 만큼 살벌한 막장 연어가 난무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맨 오른쪽)가 2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친명 인사들은 '배신' '반역' "역린을 건드렸다"는 거친 표현으로 정 대표를 공격했다. "당권·대권을 위한 욕망이다"고 정 대표를 직설적으로 비난했다. 정 대표가 "이 대통령에게 칼을 들이댔다"는 극단의 해석까지 나왔다.

정 대표는 "대통령에게 누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한 발짝 물러

정, 무기징역 선고"를 보고 다음날 발표문에서 당 안팎에서 요구한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대신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기 하는 세력과 단호한 절연'을 선택했다. 윤 어게인 세력과 절연이 아니라 옹호다. 장 대표는 "국민의 힘은 줄곧 계엄이 내란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심 판결은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충분

향이다. 그리고 6·3 지방선거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장대표는 강성 지지층 결집으로도 지방선거에 승리할 수 있다는 정치적 계산법인지 모른다. 어설피게 집토끼 산토끼 두 마리 다 잡는 것보다 확실한 집토끼 선택으로 보인다. 국민의 힘 20%대 지지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30%대의 중도층 포용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지금 결단을 내릴 때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윤 어게인 세력만으로는 지방선거를 치를 수 없다"고 말했다가 강성지지층 반발에 하루만에 말을 바꿨다.

6·3 지방선거가 몇 달 남지 않았다. 시간이 촉박하다. 6·3 선거에서 국민의 힘이 참패한다면 민주당 정부는 폭주의 가속페달을 밟을 것이다. 냉정하게 말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으로 보수를 궤멸시켰고, 한동훈 전 대표는 탄핵 찬성으로 보수를 분열시켰다.

이젠 망서릴 시간이 없다. '절연'과 '정리'를 깔끔히 하고 혁신으로 새출발 해야 한다. 당권에 집착해 머뭇거렸던 '윤 어게인'세력과 절연하고, 한

6·3 지방선거 참패땐 민주당 폭주 가속

섯지만 전장에서 화약 냄새만 사라졌지 양금은 수면 아래로 파리를 깔았다. 여당이 집권한지 1년도 안 돼 이렇게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갈등과 분열상을 보인 것은 한국정치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점입가경으로 사실상 심리적 분당 상태다. 민주당의 폭주와 내홍과 부패비리로 반등할 기회를 잡았는데도 국민의힘은 친윤 세력을 기반삼은 장동혁 대표의 당권과와 한동훈 탄핵파의 극한 대결로 지지율은 민주당 지지율의 오차 범위 밖에서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 여당과 야당 둘 다 분열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한국정치의 병폐인 팬덤정치가 낳은 결과다. 강성지지층에 의지한 팬덤 정치는 민주주의를 키치화(저질 퇴폐화)하고 후퇴시킨다.

장동혁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1심 재판에서 '내란 인

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했다.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은 탄핵을 통해 계엄에 대한 헌법적·정치적 심판을 받았고 지금도 사법적 심판을 받고 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으로 멈춰 세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즉시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서로 다른 생각을 모아 한 목소리를 내서 유능함과 당당함으로 국민과 힘을 합치자"고 했다.

그러나 때를 맞춰 당원권 1년 정치징계를 받은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은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장대표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 국민의 힘 분열은 수습보다 확대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심리적 분당을 넘어 진짜 분당될지 모른다.

문제는 장 대표의 입장 발표를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고 여론에 미칠 영

동훈 세력을 청소하고 대혁신과 인재영입으로 정치공간을 넓히고 국민에게 다가가야 한다. 당명만 바꾼다고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다. 옷만 바뀌입는다고 신체 구조안 바뀌듯 당명변경보다 정책대안과 추진하는 행동이 더 중요하다.

거대 여당 폭주에 국민의힘은 힘을 합쳐 온 몸으로 싸워도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지금처럼 심리적 분당상태에서 지방선거에 임한다면 참패를 면치 못할 것이다.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힘이 참패한다면 장동혁 대표나 한동훈 전 대표 둘 다 정치생명은 불투명해지고 보수는 궤멸을 넘어 붕괴될 지도 모른다.

정치지도자는 변화가 필요할 때는 상황이 불리하더라도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결단해야 한다. 그래야만 정치가 발전하고, 그 발전이 미래로 이어진다. ☞

치열한 글로벌 경쟁 'K로봇' 달린다

현대차 '아틀라스' 로봇 선배...로봇은 혁신의 물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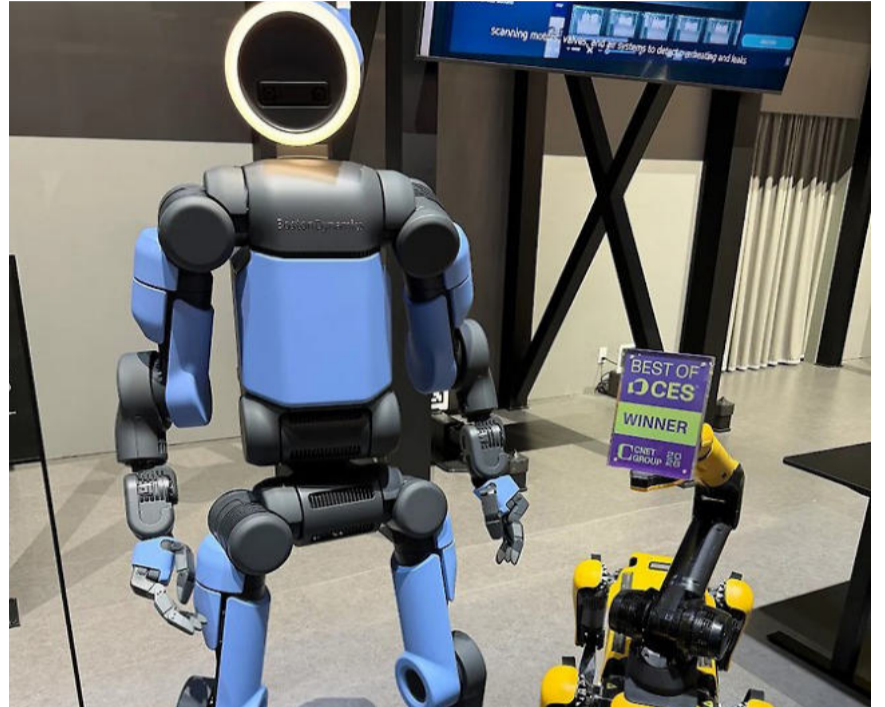
인공지능(AI)에 기반한 로봇산업이 개화기를 맞고 있다. 이는 지식뿐 아니라 노동 전반에 광범위한 충격을 주고 있다. 전문직은 물론 인간의 전 유물이라 믿었던 창의성의 영역인 작가, 화가조차 사정권 안에 들어 있다. AI와 로봇이 인간의 정교한 작업이나 감성까지 대체할 수 있는 시대가 다가왔음을 피부로 느끼게 된다. 최근 현대자동차가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을 개발, 산업 현장에 적용할 계획을 밝히자 고용 불안을 느낀 근로자들이 반발하는 등 새로운 노사갈등이 싹트고 있는 모양새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 현대차그룹의 일거수일투족이 관심거리다.

현대자동차그룹이 2020년 12월 인수한 미국 소재 보스턴다이나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인 '아틀라스' 공개 이후 로봇 생태계가 바뀌고 있다. 현대차그룹의 한 축인 현대모비스가 아틀라스에 핵심 부품인 액추에이터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밸류 체인에 편입됐다. 이에 배터리를 비롯한 다양한 산업군도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 보스턴다이나믹스는 지난 1월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전자산업박람회 'CES 2026'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공개했다. 사족보행(四足歩行)의 기능을 가진 아틀라스는 손으로 최대 50kg까지 들어 올릴 수 있는 등 중국산 휴머노이드 로봇 대비 뛰어난 성능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틀라스 로봇은 이번 박람회에서 'Best Robot'상을 수상했다. 현대모비스는 연내 현대차그룹 의왕연구소에 액추에이터 프로토타입 개발을 위한 시작 라인을 설치, 자동차 부품 대량 생산 경험을 바탕으로 액추에이터를 만들어 보스턴다이나믹스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연 3만대 생산 규모 로봇 공장을 세울 계획이다.

자동차 메이커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이미 자사 공장에 사람과 함께 일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해 시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아틀라스 공개 이후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와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이란 전망이다. 그야말로 로봇을 둘러싸고 사운을 건 현대차-테슬라 간 한 판 승부가 점쳐지고 있다. 테슬라는 자사의 옵티머스 로봇을 텍사스 공장에 들여와 기술 검정과 데이터 수집을 하고 있다.

옵티머스는 젠슨 황이 주장한 인식 AI→생성 AI→추론 AI→물리적 AI의 4단계 AI 발전 과정 중 마지막 단계에 와 있을 정도로 발전 속도가 빠르다. 엔비디아의 경우는 일부 관리자들이 직원들에게 로봇 사용을 줄이라고 해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질책하는 등 로봇 도입이 이미 상용화돼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떤가. CES에서 현대차그룹이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2028년까지 연간 3만대 양산 체계를 구축, 미국 전략 생산 거점인 조지아주 메타플랜트(아메리카(HMGMA) 자동차 공장에 투입한다고 발표하자 노조가 크게 반발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노조는 노조 소식지를 통해 "노사 합의 없이는 단 1대의 로봇도 현장에 들어 올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일자리를 잃거나 축소되는 등 고용불안을 느낀 근로자들의 당연한 의사 표현으로 읽혀진다. 이러한 움직임은 1811년~1817년 영국 산업혁명 초기 섬유 노동자들이 기계 자동화로 인한 실



경비를 줄일 수 있게 됐다. 더구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으로 기업이 근로자를 의도한대로 부릴 수 없는 상황이 된 터라 휴머노이드 로봇 사용은 필수적 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로봇의 도입으로 근로자가 일자리를 빼앗기는 등 부작용

걱정쟁력, 기술 자립, 대량 생산 능력 등 세 가지를 꼽고 있다. 단순 모듈 공급을 넘어 소재·공정·설계까지, 한 대의 로봇에 국산 기술력을 집약시킨 제품이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내 부품 산업의 양대 산맥인 삼성

1월 美 전자 박람회에서 '베스트 로봇'상 수상 저출산 고령화 시대 일손 부족 로봇이 대체

업과 착취에 반발, 방직기를 파괴한 '러다이트운동'을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작금에 일고 있는 혁신의 물결은 막을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오죽했으면 노조 친화적 성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굴러가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 없다"며 "AI 기반의 로봇 확산이 빨라져 일자리 양극화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그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이제 단순히 '사람을 대신하는 기계'가 아닌 '사람과 함께 일하는 파트너'로 자리할 가능성이 크다. 시공을 초월해 무한 근무가 가능한 휴머노이드 로봇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대기업 공장에 투입돼 일부 성과를 내고 있으며, 가까운 시일 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 도래로 날로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들은 로봇의 도입으로 더 많은 시간과

도 만만치 않은 만큼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취약한 K-로봇...부품 해외 의존도 높아 부품 국산화 절실

이 시점에서 한국 로봇 산업은 우선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 설치 밀도 세계 1위에도 불구하고 핵심부품 국산화율이 40%대에 머물러 있는 '수평적 성장'의 한계가 눈에 띈다. 우리나라는 로봇 생산이 늘어날수록 일본·중국 등 해외 의존도가 함께 높아지는 구조적 취약성이 반복돼 왔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로봇의 핵심 소재인 영구자석의 약 88%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정밀 감속기와 제어기도 일본과 중국산 비중이 높다. 일본의 경우 우리와 같은 자원 빈국이지만 재자원화 기술과 고급 소재 기술 발달로 부품 의존도를 낮추고 있다. 단계의 공급망 충격을 완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로봇산업의 승부처로 가

전기와 LG이노텍이 해외 의존도의 벽을 넘어설 수 있을지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삼성전기는 적층세라믹 콘덴서(MLCC)와 반도체 기판 경쟁력을 로봇으로 확장하는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LG이노텍은 '로봇의 눈'으로 불리는 비전 센싱 분야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휴머노이드와 산업로봇용 핵심 부품을 성장 축으로 삼고 선제 투자에 나선 이 두 기업에 대한 기대가 크다. 실제로 양사는 AI서버와 전장 수요 확대로 지난해 4분기 기대 이상의 호 실적을 거둔 이후 차기 성장 축으로 로봇을 낙점했다. 삼성SDI 등 국내 고체 배터리 업체들도 올해 로봇용 배터리 개발에 주력하고 있어 휴머노이드 로봇의 고체 배터리 장착은 전기차보다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개화하면서 부품 집약도가 높은 로봇산업이 새로운 실적 버팀목으로 부상하고 있다. [E]

조희권(본회 편집위원·전 내외경제 논설위원)

진실을 오보하고 오보를 특종하다

1993년 부안 위도 서해훼리호 침몰 사건

우리는 부안 앞바다에서 침몰한 서해훼리호의 선장 집에 잠입하여 머리를 풀어헤치고 흐느끼는 부인의 진실을 목격하고도 부끄러운 오보를 쏟아 낸 반면, 이탈리아 ANSA뉴스통신사 외신부장은 오보(misinformation)를 가지고 리카르도 에르만(Ricardo Ehrman) 특파원의 '현장기자의 말을 믿어 달라'는 간청을 수용하여 세계적인 특종을 하였다. (편집자註)

이야기 하나, 진실을 목격하고 나라 전체에 오보를 하다.

1993년 10월 10일, 부안 앞 바다에서 서해훼리호가 침몰해 292명이 사망하는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필자는 사건기자로서 취재 헬기를 타고 파도가 출렁이는 푸른 바다 위를 선회하며 망원렌즈로 '탈출선장'의 흔적과 잔해를 찾아보려고 했다. 침몰한 배의 선장 B씨가 살아있다고 MBC·KBS 등 주류 언론이 수사기관의 발표를 인용해 보도했기 때문이다. 사실이려면 천 인공노할 일이었다. 꽃다운 아이들을 심연의 바다에 밀어 넣고 자신은 탈출해 살아있다니 말문이 막혔다.

그러나 그 보도는 오보였다. 가뜰이나 상심한 유족과 희생자 가족들에게 흠이나 하는 기대마저 짓밟아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오보였다. 수사당국이 발표한 것이라며 사고선장이 탈출할 때 사용한 구명정 보트가 발견됐다는 허무맹랑한 유언비어까지 난무했다. 수사당국과 언론이 한통속이 되어 온갖 억측과 추측성 기사를 쏟아내면서 주류언론마저 '탈출선장 가족과의 통화 감청' '사고선장 도주한 듯...' 'B선장의 탈출 구명정 발견' 등의 선동성 기사에 춤추는 집단 패닉이 벌어지고 있었다.

필자는 당시 사건팀장으로서 MBC 헬기로 사고현장에 급파되어 백 선장의 집 주변에 잠입해 무거운 침묵에 싸여있는 현장 분위기를 숨죽여 살폈다. 순간 선장 부인으로 보이는 하얀 소복 차림의 여인이 머리를 풀어헤친 채 흐느끼고 있었다. 수사당국의 발표대로 선장이 탈출해 살아있다면, 그래서 가족과 몰래 통화를 했다면 있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누군들 살아 있는 남편을 두고 하얀 소복차림으로 머리를 풀어헤칠 수 있단 말인가.

필자는 현장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6하 원칙에 따라 서울 본사에 유선으로 보고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 날 9시뉴스에는 사고 선장의 '탈출 기사'만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나의 목격담은 한 줄도 기사화되지 않았다. 며칠 후야, 주류언론은 9시 뉴

스 톱기사로 '유족에게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보도했다. 한 마디로 "진실을 목격하고서도 오보를 한 꼴"이 되고 만 것이다.

이야기 둘, 분단독일의 베를린장벽은 오보로 붕괴되었다.

1989년 11월 9일 밤 이탈리아 ANSA통신이 베를린 발 긴급뉴스로 전 세계에 타전한 "베를린장벽은 붕괴됐다(The Berlin Wall has collapsed.)"라는 이 기사는 사실상 오보였지만 결과적으로 분단독일을 통일시킨 세계적인 특종이 되었다.

동독의 사회주의통일당 정부대변인 귄터 샤보브스키가 동베를린 국제프레스센터에서 열린 TV생중계 기자회견 중 머뭇거리며 했던 이 보고는 각료회의의 여행완화 의결사항이었다. 이 의결사항은 당의 승인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언제부터 여행완화 법안이 시행되느냐는 기자

의 질문에 휴가를 다녀온 샤보브스키 대변인이 "Immediately, without delay"라고 말한 실수에서 비롯되었다.

회견장의 기자들은 새로운 뉴스가 아니라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으나 이탈리아 ANSA 통신 리카르도 에르만(Ricardo Ehrman) 특파원은 로마 ANSA 본사로 즉시 "The Berlin Wall has collapsed."라고 타전했다.

ANSA본사 외신부장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며 보도를 주저하다가 "현장의 기자를 믿어 달라"는 에르만의 간청에 모든 서방 뉴스통신사보다 30여분 앞서 이 소식을 세계에 타전했다. 이 소식에 노도처럼 베를린장벽에 밀려든 독일 민중들에 의해 보른홀머 거리 검문소는 밤 11시 30분께 열리고 말았다.

이어 다른 검문소들도 몰려든 주민들에 의해 차례로 열렸고, 베를린장벽



인양되는 사고선박 서해훼리호.



분단 독일의 베를린 장벽.

위에서는 시민들이 망치로 벽을 부수며 환호했다.

다음날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었고,

은 역설적이지만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다. 그런데 이런 현상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명할지 여전히 난감하다.

AI시대 '악의적인 목적' 허위 보도 경계해야

붕괴 사흘동안 약 200여만 명의 동독 주민이 서독을 방문해 마침내 독일통일의 물길을 열었다. 결국 동서독은 현실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베를린장벽의 붕괴로 1년도 채 안 걸려 1990년 10월 3일에 '2+4조약'으로 통일을 완성했다.

이야기 셋, Misinformation vs. Disinformation

우리는 일반적으로 잘못된 보고 및 보도를 뭉뚱그려 그냥 하나로 '오보(誤報)'라고 번역 한다. 그러나 어떤 목적을 가진 악의적인 허위정보는 영어로 'disinformation'이라 하여 단순실수로 인한 '본의 아닌 오보 misinformation'과 구분한다. 악의적인 목적의 허위보도는 일종의 대중기만으로서 경계의 대상이고 처벌의 대상이지만, 독일통일을 이끌어낸 리카르도 에르만의 오보 'misinformation'

AI시대에 국내외를 막론하고 대중을 기만한 오보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다. 최근의 사례지만 박세리 선수의 가짜 결혼사진을 비롯해 미국의 주류언론들조차 트럼프대통령후보 사진을 조작해 경찰이 체포하는 기사를 유포했던 사건은 기술이 대중기만의 주범이 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제 이런 기술이 영상조작과 통계의 영터리 인용 등 그 영역을 넓혀감으로써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 무책임한 인용보도로 지난 미국 대선의 개표당일까지도 현지 언론보도라며 엉뚱한 후보의 당선을 예측한 국내 거의 모든 언론인과 언론사에 대해 국제정치학자 이춘근 박사는 "정확한 데이터와 이론 두 가지를 정론보도 인용원칙의 근거"로 제시한다.☞

류종현(본회 회우·전 MBC워싱턴특파원)

‘다카이치 열풍’ 한일관계 예사롭지 않다

강한 일본 앞세워 자민당 압승...헌법개정 눈앞



문관현
본지 편집위원
북한학 박사

지난 8일 실시된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의 역사적 압승을 주도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를 둘러싼 인기가 단순한 정치적 지지를 넘어 사회적 현상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전체 중의원 465석 가운데 과반을 넘어 자민당이 단독 개헌발의(310석)도 가능한 316석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연립여당 일본유신회와 의석을 합하면 무려 352석에 이른다. NHK 방송은 “단일 정당이 중의원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 것은 태평양전쟁 종전 이후 처음”이라고 평가했다.

‘아이돌급’ 인기를 누리는 다카이치 총리는 기존의 정치인들과 차별성을 지닌다. 아베 신조와 아소 다로, 기시다 후미오, 이시바 시게루 등 전직 총리들이 대부분 지역구와 자금, 지명도 등을 물려받은 세습 정치인이었지만 다카이치는 평범한 맛벌이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는 유리천장을 깨고 첫 여성총리에 올랐고 소셜미디어(SNS)를 능숙하게 다루며 젊은 세대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선거 전략을 구사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유세 현장에는 지지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정치메시지 영상은 조회 수가 1억 6천만 뷰를 기록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사용하는 핸드백과 펜을 사기 위해 주문이 쇄도할 정도라고 한다.

무엇보다 이번 선거에서는 미·일 동맹 강화를 강조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개 지지를 선언한 가운데 일본 유권자들이 ‘강한 일본’을 내세운 다카이치의 손을 들어주었다. 중국의 군사적 팽창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피로감 등으로 일본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이 팽배했었다.

이제 역대급 지지를 등에 업은 다카이치 내각이 ‘전쟁할 수 있는 보통 국가’로 나아가는 길목에 섰다. 금기시되었던 자위대 역할 확대와 방위비 증액, 3대 안보문서 개정, 헌법 제9조 개정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고 대다수 국민이 더 이상 전쟁을 ‘불가



1월 13일 나라현에서 악수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연합뉴스 제공)

능한 선택’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의 급부상은 한·일 관계를 비롯한 동북아 안보지형을 근본적으로 흔들 가능성과 맞물려 있다.

우선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이 “자민당 내부에서 헌법 개정을 반대

련해 ‘국가정보전략’을 연내 수립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국가안보를 위해 정보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일본관 중앙정보국(CIA)인 국가정보국 창설을 주장한 다카이치 총리의 의중이 고스란히 반

된다. 대중·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지만 과거사 문제와 결부될 경우 ‘수교 60년’ 한·일 관계는 언제든지 격랑 속으로 빠져들 수 있다. 감정적 대응보다 냉철한 정세 분석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무엇보다 다카이치 총리가 ‘여자 아베’로 불릴 정도로 우파 발언을 쏟아내면서 자신을 부각시키는 전략을 구사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는 독도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고 태평양전쟁 전범자 위패가 보관된 야스쿠니 신사 참배 강행 의사도 밝힌 바 있다. 더욱이 총리선거 과정에서 연립여당 파트너인 공명당의 지지를 얻지 못해 우익 성향 일본유신회와 손을 잡은 점도 주목해야 한다. 일본 국내 정치적 변수에 따라 국제 문제에서 언제든지 오른쪽 감박이를 선택할 수 있다.

이제 국내외 시선은 22일 일본 시마네현의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중앙 정부가 정무관(차관급)이

트럼프 ‘미·일 동맹 강화’에 전쟁 수행 주체변모 독도문제 강경...이재명 정부 실용외교 관심커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가능한 한 조속히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개헌 분위기를 띄웠다. 일본 정부는 올해 방위비로 사상 최대 규모인 86조원 수준을 확보해놓은 상태다. 헌법이 개정되면 주변국 눈치를 보지 않고 방위비를 얼마든지 늘릴 수 있으며 무기 도입도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의 글로벌 안보 기조인 ‘힘을 통한 평화’ 관점에서 볼 때 미국 역시 다카이치 총리가 평화헌법 개정을 추진하면 지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 관문으로 여겨졌던 국제사회 문턱이 사라진 셈이다. 무엇보다 미·일 동맹 성격의 변화를 주목해야 한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일본이 핵심 축으로 격상될 전망이다. 일본이 더 이상 단순히 후방기지로서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 전쟁수행 주체로서 변모할 수 있다.

일본이 정보 수집·분석 정책과 관

영된 것이다. 그는 선거 유세 당시 “일본은 정보 수집 능력이 약하다”며 “이를 강화하지 않으면 외교도, 국방도 할 수 없다. 정보력이 있다면 (일본 상품) 어디에 얼마나 투입할지도 알 수 있어 경제에도 큰 영향을 준다”고 강조했다. 국가정보국이 신설되면 내각 정보조사실, 경찰 공안부, 방위성 정보본부 등으로 분산된 정보 기능을 통합·조정하는 사령탑 역할을 맡게 된다.

일본은 미국과 함께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동중국해에서 중국을 포위하는 최전선 동맹국이 될 것이며 북한 문제에서도 군사적 역할이 더욱 강화될 소지가 있다. 예를 들면 일본이 북한 미사일 요격, 해상봉쇄, 정보감시 정찰(ISR)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미·일 3각 구도를 감안하면 한국은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안게 될 전망이다. 특히 일본의 군사력 강화는 한국에 전략적 딜레마를 안겨주게

아닌 각료(장관급)를 파견할지에 쏠리고 있다. 다카이치 내각의 향후 한·일 관계를 가능할 단초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외교부는 일단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이후 다케시마의 날 각료 파견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았다는데 주목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관련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적절한 대응을 하겠다’고 언급하면서 구체적 답변을 피해왔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 노선에 기대를 걸어본다. 우리 외교부는 한·일 정상외교 등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해 협력한다는 입장이다. 다카이치 총리가 오는 3월 미국을 방문하기 전에 한국을 먼저 찾아올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추이를 살핀다고 한다. 아직 구체적인 날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전례 없는 동북아 안보 위기 속에서 이재명 정부가 다카이치 내각과 공존의 화음을 만들어낼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

‘구국의 결단’ 실체화 할 방도 찾아내야

‘조작된 내란...’ 영화로 풀어본 12·3 비상계엄

〈2024. 12. 03 그날 조작된 내란, 감춰진 진실〉

12·3 비상계엄의 전후 사정을 본격적으로 파헤친 다큐멘터리 영화다. TV PD 출신 이영돈 영화감독 작품으로 한국사 일타강사 출신 전한길 ‘전한길뉴스’ 발행인이 제작에 참여했다. “비상계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란 질문을 관객에게 던지는 것으로 시작하는 영화는 방대한 자료와 증언 등을 통해 비상계엄에 얽힌 내막을 2시간 20분 동안 흥미진진하게 파헤치고 국민적 과제도 제시한다.

영화에 해설자로 직접 출연한 이 감독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과연 내란인가?”라고 묻고, “2024년 12월 3일은 내란이 아니라 거대 야당의 체제 전복이 완성된 날”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아울러 “실패한 쿠데타라기보다 좌파가 치밀하게 설계한 뒷이고 조작된 내란”으로 규정한다. 그에 따르면 “2016~2025년까지의 정치적 격변은 단순한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뚜렷한 패턴을 가진 진화하는 공작의 역사”, 즉 더불어민주당의 정권 탈취 계획이 구체화되는 과정이다.

한마디로 “이재명은 문재인 탄핵 시나리오의 완벽한 계승자”라는 게 영화를 시종일관 관통하는 담론이다.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의 국민적 분노를 각각 박근혜 대통령과 윤 대통령 개인에게 돌리고, 가짜 태블릿pc나 조작된 메모와 오락가락 증언들을 탄핵의 주요 근거로 삼는 등 두 우파 대통령을 교도소로 보낸 평행 이론의 실체도 까발린다. 박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기획된 것 아닌가? 우발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말로 이 같은 견해에 공감을 나타냈다.

주지하다시피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방송 3법, 상법 등 악법을 양산하며 입법 독재를 휘둘렀다. 이와 함께 무려 29건의 줄탄핵을 강행하고, 대통령실·감사원·검찰·경찰의 특별활동비를 전액 삭감하는 무지막지한 예산 칼질도 서슴지 않았다. 말하자면 정부 기능을 마비시켜 ‘식물정부’로 만들어 국정을 멋대로 주무르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헌정 사상 여소야대가 더러 있었지만 이런 조폭식 횡포는 없었다. 영화는 “이게 바로 내란”이라고 규탄한다.

영화에서 야당의 패악질 못지않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부정 선거다. 부정 선거 의혹 규명은 비상계엄이 겨냥한 핵심 목표의 하나다. 국회보다 1시간 이상 이른 시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3곳에 군을 보냈고, 투입 병력(300여 명)이 국회(280여 명)보다 많았던 것도 그래서다. 만에 하나라도 선거 때마다 제기되는 부정 선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덮쳐 정치권이 통째로 뒤집힐 게 뻔하다. 때마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 부정 선거 카르텔을 거세게 몰아치고 있어 그 불똥이 우리에게 튄지도 관심사다.

영화는 무엇보다 조작이 아니곤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사전 투표 결과에 주목한다. ‘부모님이 같은 날 다른 장소에서 각각 교통사고 날 확률’, ‘우주



〈2024.12.03 그날 조작된 내란, 감춰진 진실〉 영화포스터.

며 국가 최고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의 보좌까지 받고 있음에라.

그런데도 우파 언론이라는 조·중·동부터 ‘음모론’으로 일축하니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하긴 박 대통령 때 촛불 시위는 연일 대서특필했으면서도 문재인 정권 시절 광화문 일대를 뒤덮던 ‘태극기부대’는 한 줄도 안 다룬 전력을 보면 이들 매체의 본성이 그런지도 모른다. 우파 궤멸을 노린 좌파의 내란 몰이에 초장부터 적극 동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비상계엄이 6시간 단명에 그치

이재명은 문재인 탄핵 시나리오 완벽한 계승자

역사상 단 한 번도 일어날 수 없는 확률, ‘무조건 조작(현실에서 불가능)’ 등이 통계학적 불가사의를 꼬집는 표현들이다. 영화는 21~22대 총선과 20~21대 대선 모두 부정이 자행됐다고 본다. 그 결과가 민주당의 국회 장악과 이재명 대통령 당선이다. 22대 총선의 경우, ‘부정이 없었다면 민주당 의원 52명 낙선’이라는 구체적 수치도 나온다. 다만 20대 대선은 사전 투표 하루 전 ‘안철수 후보 사퇴’라는 돌발변수가 터져 득표율 조작 과정에 착오가 빚어진 덕분에 윤 대통령이 가까스로 이겼다는 설명이다.

이런 통계학적 분석 말고도 지금까지 ‘배춧잎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유령표, 형상기억종이, 개봉 및 봉인지 손상 투표함, 전산망 해킹 등 부정 의혹 증거가 술하게 제시됐지만 하나같이 “지금 세상에 부정 선거라니”라는 한마디에 맥없이 밀려 만사휴이다. 좌파는 말할 것도 없고 우파의 상당수도 “터무니없다”며 손사래 친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이 제기하는 의혹마저 짓뭇개는 부정 선거 카르텔의 철옹성에 기합하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대통령보다 정보를 더 많이 얻고 더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어디에 있단 말인가. 하물

는 바람에 부정 선거의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비상계엄은 공정 선거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라는, 하늘이 대한민국에 내린 준엄한 경고”라는 해석이 더없이 묵직하게 들리는 이유다.

영화는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은 무엇을 해야 하나?”고 묻고 “저항권밖에 없다”는 각계 인사의 인터뷰 답변으로 막을 내린다. 좌파는 “지금까지 나온 음모론의 총집합일 뿐”이라며 애써 훼손하려 들지만 비상계엄에 얽힌 내막과 함의를 국민에게 소상히 밝힌 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지난달 4일 개봉한 후 누적 관객 수가 20만을 훌쩍 넘었지만 더 많은 사람이 보고 ‘감춰진 진실’을 깨우쳤으면 하는 바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내란 재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비상계엄은 구국의 결단이었다”고 강조하는 입장문을 냈다. 지금은 좌파의 국정 농단과 부정 선거로 초래된 국난을 국민에게 일깨운 ‘계몽령’이 열매를 맺도록 최선의 방도를 찾아 펼쳐 일어날 때다. “당신은 침묵하시겠습니까?”

이도선 (주필·전 연합뉴스 논설실장)

특파원 수첩 런던 ⑪

신상옥·최은희 ‘영화보다 더 극적인 삶’

1986년 빈 주재 미국대사관에 부부 탈출기 전말



박창래
전 동아일보 런던특파원
전 문화일보 편집국장
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표이사

신상옥 - 최은희 부부 빈 탈출 전말기 '영화보다 더 극적인 삶', 전 세계가 로케 현장

최은희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배우이다. '영화 같은 삶', 아니 '영화보다 더 극적인 삶' - 배우 최은희에게는 항상 이런 수식어가 따라 다닌다. '한국 영화 전성기를 이끈 배우', '해방 이후 한국영화사를 대표하는 여우', '해외 영화제 한국인 최초 수상' 같은 표현은 그 뒤에 따를 뿐이다. 북한에 두 번이나 납치된 뒤 탈출한 파란만장한 역경 때문이다.

1960년대를 휩쓴 영화계의 원조 트로이카. 김지미, 엄앵란 등 젊고 싱싱한 후배에 비해 조용하고 현숙한 여인상으로 당시대의 독보적인 배우요, 지고지순한 현모양처, 전통적 어머니상의 대명사였다. 자서전에서 본인 스스로 <마음의 고향>, <어느 여대생의 고백>과 함께 대표작이라 손꼽는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는 그의 수작. 이들 트리오의 우리 세대의 추억이자 로망이었다.

결출한 감독 신상옥은 빼놓을 수 없는 그의 동반자. 신상옥·최은희 부부는 타계할 때까지 국제사회, 특히 남북경계선을 배경으로 한 인생 드라마의 주인공이요, 서울, 홍콩, 평양, 런던, 빈, 미국 등을 로케 현장으로 사용한 국제 배우였다.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그 드라마의 현지 로케는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에서 시작되었다.

내가 런던 특파원으로 재임하고 있던 시절, 1986년 3월16일 일요일 새벽 3시. 단잠을 깨우는 전화벨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잠결에 생각해도 틀림없는 서울로부터의 전화였다. 이런 한밤중에 걸려오는 전화는 서울 전화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것이 어디 한두 번이던가. 서울과 런던과의 9시간이란 시간 차이는 가끔 이곳 특파원의 밤을 송두리째 빼앗아 간다. 그러나 일요일 새벽의 전화는 더욱 더 수상쩍었다. 런던의 일요일 새벽 3시는 서



1989년 5월 신상옥·최은희 부부가 귀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울에서도 일요일 낮 11시, 모두가 쉬고 있을 때가 아닌가.

아니나 다를까 일이 터지고 말았다. 전화를 통해 다급하게 전해지는 본사로부터의 소식은 북한에서 활동 중인 최은희와 신상옥이 빈 주재 미국 대사관으로 들어가 서방으로의 탈출을 요청했다는 전갈이었다. 그리고 빠른

생활상과 현재의 심경 등을 자세히, 그리고 솔직히 털어놓았다. 그때 그는 서울에 남겨둔 아이들이 가장 보고 싶다며 인간적인 고민을 감추지 못했다. 북한의 남녀 영화배우와 건장한 체격의 남자 20여명과 함께 이곳에 온 그는 그러나 나와 만날 때는 그들을 모두 물리치고 비교적 자유로운

잠깐, 나는 현장에 달려가 취재해야 한다는 생각에 조그마한 흥분이 일기 시작했다. 그 사이 진전되는 새로운 소식을 전해 주려는 서울로부터의 간단없는 전화는 나를 그대로 조용하게 놓아두지 않았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빈으로 향하는 비행기 속에서의 두 시간 동안 온갖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다 사라진다. 레바논 베이루트에서의 취재를 마치고 돌아온 것이 불과 한 달여 밖에 되지 않지 않은가. 지난 2월 3일 전쟁이 한창인 베이루트에서 우리 대사관의 도재승 서기관이 정체 불명의 괴한에게 납치, 지금까지 행방을 알 수 없는 사건을 취재하러 갈 때도 이처럼 급한 상황이었다. 다만 그때와 다른 것이 있다면, 그 때는 11년 전쟁 중에 있는 나라에 가는 불안

1984년 런던 국제영화제서 북한생활 고백 당시 서울거주 오수미가 낳은 혈육 보고싶다

비행기 편으로 현장에 가서 취재하라는 지시였다.

잠적 6년 만에 런던 영화제에, 인간적 고민

순간 짚이는 것이 있었다. 바로 1년 4개월 전인 1984년 11월 28일 나는 신상옥을 그가 홍콩에서 잠적한 이후 6년 만에 한국 기자로서는 처음으로 런던에서 만난 일이 있었다. 잠적한 이후 외신을 통해서만 유고슬로비아나 헝가리 등 동유럽권에서 영화제작 활동을 벌여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그는 그 후 처음으로 서방 세계인 런던에 나타나 한국 기자와는 처음으로 나를 만난 것이다. 런던 국립영화관에서 열린 제28차 국제영화제에 북한에서 이준 열사의 이야기를 영화화한 최은희 감독의 <돌아오지 않는 밀사(密使)>를 출품했었다. 전 세계 39개국 147개 작품이 출품된 이 런던 필름페스티벌에 남한에서는 <물레야 물레야>와 <안개마을>등 두 편을 내놓았다.

당시 신상옥은 작품 상영이 끝난 뒤 나와 식사를 같이 하면서 북한에서의

분위기에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그는 북한으로 넘어가기 전 신인 배우 오수미와 비밀리에 관계, 최은희가 들인 두 양자 이외로 친(?)자식, 아들을 낳았었다.

“서울에 두고 온 애들이 가장 보고 싶다. 애들한테 양육비를 보내고 싶다. 그러나 그들이 피해를 볼까봐 못한다. 이산가족 재결합하자고 하는데 우리 애들한테 선물이나 소식을 보낼 수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사진도 돈도 보내고 싶다. 다시 나오는 것을 보장한다면 들어가고 싶다.”

그밖에 그는 박정희 대통령과의 불화로 북한으로 탈출한 동기, 남북한의 영화 제작 환경, 영화에 대한 김정일의 열정, 그리고 자기의 활동상에 대해 무려 세시간에 걸쳐 소상히 술회했다. 나는 이런 사실들을 당시 런던 주재 중앙정보부 책임자 (허승욱 공사)에게 상세히 알려주었다.

崔-申 부부, 북한 탈출위해 미국대사관으로

그때 만났던 기억을 되새기는 것도

감이 온몸을 짓눌렀는데 비해 이번은 그래도 낭만적인 도시, 음악이 흐르는 도시에 가기 때문에 그 때의 불안감은 적은 것이었다고나 할까. 어쨌든 나는 요즘 도재승 피랍, 신상옥·최은희 탈출 등 굵직한 사건기사를 다루는 국제적 사회부 기자가 되었다.

그러나 낭만적인 생각은 사치스러운 일. 당장 무엇을 어떻게 알아내느냐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어깨를 짓누른다. 빈으로 떠날 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은 단순한 첩보, 단 세가지. ①최·신 부부가 서방으로의 탈출을 위해 13일 그곳 미 대사관으로 들어갔다. ②그 하루 전날 빈에 와서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일박했다. 그리고 ③미 대사관으로 탈출할 때 그들 부부 이외에 또 하나의 남자가 택시 안에 타고 있었다. 이런 사실은 그들의 탈출을 처음으로 보도한 일본 교도(共同) 통신의 15일자 기사에 의해 밝혀진 것이다.

빈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이곳 주재 미국대사관으로 달려갔다.☞

과학자·기술자 우대... '한강의 기적' 밑거름

대한연론 특별기획 박정희 경제기적 재조명 ⑧



좌승희 박사
아주대국제대학원 초빙교수
전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



허만 칸 박사의 예방을 받고 환담을 나누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

경제학의 분류는 기업을 경제분석의 대상으로 통합하지 못한다. 경제학이 가장 선호하는 보편적 시장은 정보가 완전한 그래서 거래비용이 안 드는 완전경쟁시장이다. 이 시장에서는 현실의 기업이 설 자리가 없다는 말이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 바탕을 두는 주류경제학에는 인간이 발명한 최고의 경제 제도적 발명품인 기업이라는 경영 주체는 없어지고 대신에 기업은 자본, 노동, 기술 등 생산요소로 분해되어 그 실체가 사라졌다. 자본, 노동, 기술 등 생산요소만 시장에 공급하면 시장이 알아서 생산하는 시장경제모형이 완성된다. 그러니 기업은 아무리 규제해도 시장이 경제를 성장·발전시키니 문제없다는 경제학이나, 경제학자나 정치인들이 판을 치게 되는 것이다. 박정희는 바로 이 비현실적인 반기업적 시장 중심 사상을 뛰어넘는 자본주의 기업경제 패러다임을 일찍이 통찰하였다.

실현한 것이다. 박정희 시대 한국의 산업혁명도 이러한 기업의 육성과 성장으로 가능했다. 1970년대 후반 박정희 대통령과 당시 세계적인 미래학자 허만 칸(Herman Kahn)과의 대담 내용을 통해 박 대통령의 자본주의 기업 부국철학을 살펴볼 수 있다. 박정희와 허만 칸의 대화 (유한채: 다시 조명해본 박정희 대통령, 과학사랑, 2010, pp 277~278)

▲허만 칸: “한국의 경제성장은 한마디로 경이적인 것이요. 대통령께서는 경제학을 공부할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자본축적이 없는 상황에서 이토록 훌륭한 경제 기적의 대업을 이룩할 수 있었소?”

생명력을 가지게 되지요. 숫자가 살아 움직여야 성공합니다. 숫자가 살아 움직일 때 지혜는 솟아오르게 마련이니까요.”

여기서 박정희의 놀라운 통찰력은 자본주의 경제발전은 시장보다 기업이 주도한다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사농공상의 농경사회 계급이념을 타파하고 자본주의 계급이념인 상공농사의 새로운 계급관을 창출하여 자본주의 산업혁명을 완수했다. 실사구시적인 상공인과 과학자와 기술자가 공리 공론하는 정치인, 학자, 공무원, 언론인들보다 우대받는 시대를 창출

오늘날의 중국은 사회주의를 하면서도 기업 육성을 통해 성공하고 있다. 경제발전은 자유방임 시장 중심도 아니며, 정부의 직영 개입도 아닌 민간 기업의 창발 능력을 활용한 기업주도 산업화가 이끌었다는 것이 역사의 경험이다.

서구의 경우 주식회사를 발명한 영국이 산업혁명을 주도했으나 사농공상이념을 신속히 탈피하지 못하는 사이, 영국의 기업제도를 무임 승차한 미국이 상공농사 이념 속에서 급속하게 성장한 대기업들을 앞장세워 영국을 추월하였다. 영국은 주식회사를 발명하고도 우수한 인재들이 기업인(상

재벌중심 고속성장으로 '한국의 산업혁명' 이룩 민간기업 주도 수출 육성·중화학 공업화 성공

2. 박정희 대통령의 기업부국 패러다임

서구의 산업혁명은 시너지 창출의 보고인 (유한책임주식회사) 기업의 등장으로 가능했다. 주식회사 제도는 17~18세기에도 활용되었지만, 주식시장의 버블을 막는다고 버블법(Bubble Act)으로 18세기 100년(1720~1825)간 기업설립을 의회 허가제로 규제하던 영국에서 1825년 기업설립을 등록제로 허용하고 1844년 기업법(company Act)이란 이름으로 제도화된 후, 1855년과 1862년 유한책임제도를 보완하여 오늘날과 같은 유한책임 회사법으로 보편화 되었다.

기술혁신이 산업혁명을 가져왔다고 하지만, 과학과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이런 실력을 이용하여 경제적으로 값어치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다량으로 생산하지 못하면 경제엔 크게 도움이 안된다. 인간은 주식회사 기업을 창발적 생산을 시장보다도 더 잘할 수 있는 조직으로 발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본과 기술과 인력을 통합하여 마차 경제를 기차, 자동차, 비행기 경제로 창발시켜 산업혁명을

▲박정희: “물론 경제학을 전공하지는 않았소. 경제학자가 경제를 많이 안다고 해서 실물경제에 밝거나 은행원이 돈을 만진다고 해서 재벌은 아니질 않소. 실제 경제를 움직이는 것은 경제학자가 아닌 재벌이란 점을 알면 됩니다. 나는 그들을 활용했소. 그들에게 어떠한 환상을 심어주고, 움직이게 하려면 먼저 그들이 신바람나게 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지혜를 짜내어야 합니다.”

▲허만 칸: “동방에 공자와 맹자, 석가와 같은 선지자가 많다는 것은 들었지만 전쟁밖에 모를 군인 출신의 대통령이 어쩌면 그토록 복잡한 경제수리 분야의 지혜를 짜 낼 수 있던 말이지요?”

▲박정희: “그것은 정성입니다. 나의 정성과 혼을 경제계획에 집중적으로 쏟으면 반드시 지혜가 흘러나오게 마련입니다. 나는 새로운 경제계획을 입안할 때마다 무수한 밤을 새우며 일합니다. 숫자 하나하나에 나의 정성과 혼을 불어넣습니다. 그러면 숫자가

하였다. 대통령부터 시작하여 정부와 국민 모두가 나서 기업의 애로를 해결해 주고 수출 우수기업과 기업인을 영웅시함으로써 상공인을 우대하는 친기업적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낸 것이 경제 기적의 밑 거름이 되었다.

박정희시대의 수출육성, 중화학공업화 등 모든 산업정책은 정부의 성과주의 인센티브 하에 민간 기업들의 주도로 추진되었다. 공산주의·사회주의 국가의 개발계획들이 정부 직영공장 체제를 택하거나 대만이 정부 직영 중공업 체제를 택해 실패했지만, 한국은 계획은 정부가 했으나 실행은 민간 기업이 주도하였다. 전후 한국만이 유일한 성공 경험이다. 전전의 명치 일본이 서구 개척-업 과정에서 재벌기업육성을 통해 성공한 경험과 유사하다. 철도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산업혁명과 경제부흥에 시동을 건 미국경제도 “미국의 본업은 사업(business)을 잘하는 것이라는 철학이 이룬 성과다. 공산주의 소련은 기술의 발전에도 기업조직이 없어 망했지만,

공인)으로서 기업을 일으켜 성공하려 하기보다 여전히 정치인, 법조인, 학자 등 철학자의 길을 선호하였지만, 미국은 기업을 창업하여 성공하는 기업인이 되는 길을 값어치 있는 인생의 목표로 생각하는 기업 우위 문화가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기업 육성이 뒤진 영국이 20세기 이후 2등국으로, 오늘날 3등국으로 전락하였다.

한국도 상공농사의 새 계급이념을 창출했던 박정희 사후 반대기업 정서의 만연 속에, 그리고 정책 실패로 인한 외환위기를 파산 대기업들의 탐욕 때문으로 호도하면서 박정희시대 기업 우대적 국가이념이 외환위기 이후 정치와 정부 우위로 다시 역전되었다. 오늘날 한국은 사농공상의 반자본주의적 계급이념으로 회귀하여 창의적인 기업가보다 정치인, 판·검사, 공무원, 학자, 기자가 되어 군림하는 사회가 되었다. 기업과 기업인이 흠대받는 한국 자본주의의 경쟁력이 향후 얼마나 지속 가능할지 초미의 관심사이다. ☞

청소년 축구 - 이재명 정부 '답은 낄'

베트남전 졸전-장관후보 잇달아 '낙마' 구설수



김휴선
칼럼니스트·
전 MBC 보도국 부국장

지난 1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3세 이하 아시아 청소년 축구대회가 열렸다. 아시아 16개국이 참가한 이 대회에서 우리나라는 4위라는 성적표를 들고 초라하게 귀국했다. 대표팀 이민성 감독은 생각했던 것 만큼 성적을 못내 죄송하다고 했다. 이번 청소년 축구대회는 현 정국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하다.

필자는 옛날 현업에 재임했을 때 축구기사를 해 본 경험이 있는지라 이번 청소년 대회를 밤마다 지켜봤다. 요즘 우리나라의 국력이 신장함에 따라 축구는 물론이고 야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 중에서도 축구는 우리나라 국기(國技)일 정도로 인기가 대단하다. 특히 국가대항전은 그 나라의 국력을 평가할 정도로 치열하다. 그래서 이번 청소년 대표는 앞으로 국가대표를 할 재목들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예선전은 차치하더라도 일본전과 베트남전은 치욕적인 게임이었다.

특히 베트남과의 3·4위 결정전은 한 명이 퇴장 당한 10명의 베트남과 연장전까지 가는 졸전 끝에 승부차기 7대 6으로 패하고 말았다. 본경기 내내 32번의 슈팅을 날리면서도 승부를 가르는 골을 뽑아내지 못하고 허무하게 패했다. 경기에 임한 어린 선수들은 물론이고 경기를 시청한 국민들의



이민성 U-23 축구대표팀 감독이 베트남전 참패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실망도 컸을 것이다. 전·후반 90분, 연장전 30분까지 승부를 내지 못하고 승부차기로 우열을 가렸으니, 그것도 우리나라 감독들이 키워낸 변방의 베트남 팀에 말이다.

그 날 경기는 정말로 무기력했고 전술 하나 없었다. 전·후반 내내 일방적으로 좌우에서 가운데로 공을 띄우는 전략 하나 뿐이었다. 감독이라는 사람은 벤치에 앉아 경기를 구경하는지, 지휘를 하는지 분간하기가 힘들 정도였다. 베트남팀 김상식 감독은 수시로 그라운드 주변에서 큰 소리로 진두지휘해 대조가 됐다. 결국 역대 맞대결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었던 베트남에 지고 말았다.

일본과의 경기도 그렇다. 한·일전은 항상 숙적이라는 수식어가 따라

다닌다. 일본 대표팀은 우리보다 나이가 두 살이나 어린 선수들로 짜여 있다고 했다. 그런데도 그 날 한·일전은 전술 없는 경기였고 결국 1대 0으로 쓰러린 패배를 맛봤다.

이번 청소년 축구대회가 요즘 우리나라 정치를 보는 것 같아 씁쓸기만 했다. 경기 내내 이재명 정부가 오버랩 되었다.

축구협회가 그 많은 축구인 중에 작전 하나 없는 이민성 감독을 뽑은 것 자체가 잘못이다. 이 감독은 몇 차례 국가대표 수비수 또는 감독을 했었지만 차범근 선수나 박지성, 홍명보 선수처럼 한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선수는 아니었다. 그 날 경기는 마치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모양새를 보는 것 같아 한심스러웠다. 이재명 대통

령은 한 나라를 지휘하고, 이민성 감독은 국가대표를 지휘하는 감독이다.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은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밀어붙였다. 이해훈 후보자는 물론이고 집권여당 그리고 대통령 자신도 흠결이 생기는 일을 자초했다. 거기에서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 낙마, 강선우 여성가족부장관 낙마 등 실패의 연속이다. 또 야당쪽은 어떻게 했는가. 이진숙 방통위원장 퇴출,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이사장과의 일전 등 자기 사람이 아니면 쫓아내려는 편 나누기식 통치법은 스포츠에서도 성공할 수 없는 지도 방법이다. 이뿐만 아니다. 이재명 정부의 집권여당은 어떤가. 이미 전재수 해수부장관이 통일교 관련으로 스스로 장관 자리를 내 놓고, 강선우 의원 역시 김경 시의원 비리와 관련해 자진 탈당을 하는가 하면 김병기 원내대표 등 그야말로 집권 여당은 비리의 온상처럼 보인다. 그뿐 아니다. 풀어야 할 여·야 관계는 물론 한·미·일 문제 등, 특히 관세 문제에서 매년 200억 달러를 내야 하는 문제,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모든 일이 그렇지만 나라가 평온하고 안정돼야 스포츠도 안정속에 경기를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필자는 이번에 탄생한 정부가 좌파이기 때문에 미국이 싫어하는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이 정부는 누가 탄생시켰나. 지금은 미국을 달라고 한·미 관계를 돈독히 하는 길만이 최선의 길이다. 미국을 건드릴 때가 아니다. ☞

'평창 銀' 원윤종 IOC 선수위원 당선

한국, IOC위원 2명

2018평창동계올림픽 봅슬레이 은메달리스트인 원윤종(40·사진)이 우리나라 동계 스포츠 선수 출신 첫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이 됐다. 원윤종은 지난 19일 이탈리아 밀라노의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선수촌에서 실시된 IOC 선수위원 투표 결과 11명의 후보 중 1위를 차지해 선수위원에 당선됐다. 임기는 2034년 유타 동계올림픽까지 8년이다. 한국인 IOC 선수위원은 2004년

아테네 올림픽 태권도 금메달리스트 문대성, 아테네 올림픽 탁구 남자 단식 우승의 유승민(현 대한체육회장)에 이어 원윤종이 역대 세 번째다. 특히 한국 동계 종목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IOC 선수위원으로 선출됐다. 원윤종의 당선으로 우리나라 현역 IOC 위원은 2명으로 늘었다.

앞서 2023년 IOC 위원으로 선출된 김재열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회장은 이번 동계올림픽 직전에 열린 IOC 총회에서 IOC 주요 의제를 결정하는 집행위원회 위원에 당선됐다.

원윤종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한국 대표팀 파일럿으로 봅슬레이 남자 4인승에서 은메달을 획득, 이 종목 아시아 최초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IOC 선수위원으로서 전 세계 운동선수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스포츠를 통한 평화와 연대의 가치를 확산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풍부한 경험과 균형잡힌 시각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있는 스포츠 환경



조성에 앞장서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젊은 피 김길리 2관왕-최가은 '투혼 金'

밀라노 동계올림픽 폐막 스노보드 돌풍-쇼트트랙 체면유지



최규섭
(사)한국체육언론인회 사무총장
『스포츠 저널 코리아』
편집인 & 편집위원장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2월 6~22일·현지 일자)이 막을 내렸다. 92개국 2,871명의 선수들이 출전해 16개 종목에서 116개의 '금메달 향연'을 펼친 지구촌 겨울 대축제였다. 종합우승의 기쁨은 노르웨이(금 18, 은 12, 동 11개)가 누렸다. 2014 소치 대회부터 4연패를 이루며 동계올림픽 최강국의 위상을 굳게 지켰다. 아울러 통산 메달 레이스에서도, 선두(금 16, 은 146, 동 135개) 자리를 굳건히 했다.

대한민국은 비교적 관창은 전과를 올렸다. 그러나 아쉬움도 남았다. 두 마리 토끼 (금메달 세 개 이상 획득, 톱 10 진입)사냥은 50% 달성으로 끝났다. 금메달 수확 목표는 이뤘으나, 톱 10 돌입의 뜻은 이루지 못했다. 직전 무대인 2022 베이징(北京) 대회(14위·금 2, 은 5, 동 2개)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긴 했어도(13위·금 3, 은 4, 동 3개), '8년 주기 상승세'는 재현하지 못했다. 한국은 2010 밴쿠버 대회에서 역대 최고 순위(5위·금 6, 은 6, 동 2개)를, 2018 평창 대회에서 최다 메달(17개·금 5, 은 8, 동 4개)의 개가를 각각 올린 바 있다.

설상 종목에선, 눈부신 성과(금·은·동 각 1개)를 거뒀다. 반면 빙상 종목에선, 기대치를 밑돌았다. 쇼트트랙은 나름대로 분전(금 2, 은 3, 동 2개)했다. 그러나 스피드 스케이팅은 몰락했다. 단 한 개의 메달도 따내지 못했다. 2006 토리노대회 동메달(이강석·남자 500m) 이후 20년 만에 '메달 명맥'이 끊겼다(표 참조).

스노보드: 전인미답의 첫 장을 열다

망외의 '대풍가'를 불렀다. 빅 3! 각각 금·은·동 1개씩을 수확하며 일약 세계 강국으로 떠오른 감격의 무대는 2026 동계올림픽. 설상 종목에서 앞으로 한국을 이끌어 갈 선봉장으로 자리매김했다. 황무지를 옥토로 탈바꿈한 '개척자'의 이미지를 깊게 아로새겼다. 아울러 한국 동계 스포츠의 구조적 변화, 곧 빙상 편중에서 '빙상



김길리



최가은



최민정

쇼트트랙 최민정 통산 최다메달 수확

■ 2026 동계 올림픽 대한민국 성적

| 종목 | | 메달 | 이름 | 출생 연월 | 소속 |
|--------------|--------------|------------|---------------------|---------|--------------|
| 스노보드 | 여자 하프파이브 | 금 | 최가은 | 2008-11 | 롯데 스키 & 스노보드 |
| | 남자 평행대회전 | 은 | 김상겸 | 1989-1 | 하이원 스포츠 |
| | 여자 빅에어 | 동 | 유승은 | 2008-1 | 롯데 스키 & 스노보드 |
| | 순위(금-은-동) | 3위(1-1-1) | | | |
| 쇼트트랙 | 여자 1,500m | 금 | 김길리 | 2004-7 | 성남시청 |
| | 여자 3,000m 계주 | 금 | 김길리-최민정-심석희-노도희-이소연 | | |
| | 남자 1,500m | 은 | 황대현 | 1999-7 | 강원도청 |
| | 남자 5,000m 계주 | 은 | 황대현-임종언-이정민-이준서-신동민 | | |
| | 여자 1,500m | 은 | 최민정 | 1998-9 | 성남시청 |
| | 남자 1,000m | 동 | 임종언 | 2007-10 | 고양시청 |
| | 여자 1,000m | 동 | 김길리 | | |
| 순위(금-은-동) | 2위(2-3-2) | | | | |
| 종합 순위(금-은-동) | | 13위(3-4-3) | | | |

+설상 병행 체제'로 확장되는 전환점의 결실을 올린 한국 스노보드다.

최초의 연속이었다. 그 주인공은 최가은(18·롯데 스키 & 스노보드)-김상겸(37·하이원 스포츠)-유승은(18·롯데 스키 & 스노보드) 트리오였다. 최가은은 여자 하프파이브에서, 김상겸은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유승은은 여자 빅에어에서, 제각기 종목별 첫 메달을 쟁취했다. 금(최가은)-은(김상겸)-동(유승은)으로 색깔만 달랐을 뿐, 한국 스노보드 역사의 첫 장을 여는 감격을 누렸다. 외연을 넓혀도, 역대 한국의 동계올림픽 설상 종목 첫 금, 은, 동메달이었다.

'겁 없는 소녀' 최가은은 불굴의 투혼을 불사하며 '설상 아이콘'으로서 인상을 깊게 뿌리내렸다. 결승 1차 시기에서 크게 넘어져 부상으로 말미암은 기권까지 예상됐으나, 이를 딛고 3차 시기에서 최고점(90.25)을 연

기하며 대역전극을 연출해 감동을 자아냈다. 자신의 '우상'으로 3연패를 노리던 '전설' 클로이 김(26·미국·은·88.00점)을 제치고 금빛을 수놓는 감격의 순간을 빚어냈다.

쇼트트랙: 위엄을 지켰어도 '지존'으로 선 상처 입어

아쉽게도, 또 한 번의 3연패는 좌절됐다. 대망의 금자탑은 네덜란드의 거센 도전 앞에서 결실을 맺지 못했다. 총 9개의 금메달 가운데 과반을 차지한 네덜란드(5개)의 위세에, 한국(2개)의 자존심이 한풀 꺾였다.

그러나 역대 통산 성적에서, 한국은 여전히 최강의 존엄성을 굳게 지켰다. 최다 금메달(28개)과 최다 메달(60개)수에서, 단연 최고봉이다. 금메달(중국·12개)과 최다 메달(캐나다·42개)에서 뒤를 쫓는 2위를 큰 격차로 따돌리고 있다.

이번 올림픽에서도, 쇼트트랙은 자칫 침몰의 수모를 겪을 뻔했던 한국을 구해 냈다. 금 2, 은 3, 동 2개를 획득해 한국이 동계 올림픽 강국의 반열에 계속 설 수 있는 중추가 됐다. 메달 총수(7개)에선, 네덜란드(금 5, 은 1, 동 1개)와 똑같았다. 이번 올림픽에서, 한국이 거둬들인 10개의 메달 가운데 70%의 높은 비중을 이를 만큼 절대적 공헌도였다.

선봉장은 김길리(22·성남시청)였다. 2개의 금메달(여자 1,500m·3,000m 계주)과 1개의 동메달(1,000m)에 빛나는 질주를 펼쳤다. 단순한 신예 돌풍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완성형 에이스'의 탄생을 알린 포효였다. 기술·체력·심리가 어우러진 빼어난 경기 운영 능력과 맞물린 '담보르길리'의 후반 스피트는 모두를 감탄케 한 백미(白眉)였다.☞

독립운동 사적지 美 샌프란시스코 ‘페리부두’ 항일 역사 현장, 대한민국서 잊혀지나?



전의식
본회 편집위원 · 전 서울신문 부국장

올해도 3월은 어김없이 찾아왔다. 107년 전의 3월 초하룻날, 종로 탑골 공원에 운집한 우리 선조들은 일제의 식민통치에 항거하는 만세운동을 시작하면서 한국인의 자주독립 의지를 세계만방에 알리는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다.

그리고 1945년 8월15일, 한민족의 끈질긴 투쟁과 연합국의 지원으로 광복을 맞은 대한민국은 기미년의 만세운동을 가장 중요한 국경일인 3·1절로 지정하고 매년 성대한 기념행사를 펼치고 있다. 대통령을 필두로 선열 유족과 시민들이 참석하는 중앙정부 기념식과 각 지역 지자체에서 마련하는 기념행사 소식을 접하면서 언젠가는 희미한 역사적 기억으로 사라질지도 모르는 샌프란시스코 지역 독립투사들의 활동을 살펴보고 의거지의 실상도 찾아 본다.

1908년 3월 23일 미국 샌프란시스코만에 있는 페리부두 빌딩 앞에서 전 세계를 경악시킨 총격 사건이 벌어졌다. 이날 저격을 받은 인물은 대한제국의 외교 고문인 친일 미국인 D.W 스티븐스이고 그를 권총으로 처단한 주인공은 미국에 노동 이민으로 건너와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는 장인환, 전명운으로 그날 현장에서 미국 경찰에 체포되었다.

명문 콜롬비아대학을 나온 엘리트인 스티븐스는 도쿄 주재 미국영사관의 서기관으로 근무하면서 일본 정계 거물들과 친분을 다졌고 1904년 이토 히로부미의 추천으로 고종황제의 외교 고문이 되었다. 하지만 그는 한국인을 비하하고 을사늑약 등 일본의 조선 합병을 위해 암약한 대표적 친일파였다.

4년 후 본국 휴가 명목으로 요코하마에서 기선을 타고 샌프란시스코항에 도착한 스티븐스는 3월 21일 현지 기자회견에서 “조선 백성은 우매하여 독립할 자격이 없으므로 일본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라는 망언을 쏟아내 샌프란시스코에서 거주하는 한인 동포들을 분노에 떨게 했다.

그리고 23일 오전 9시, 워싱턴으로



샌프란시스코 페리부두 전경. 건물 왼쪽부터 세 번째 아치창문 앞쪽 광장이 두 의사의 거지점이다. (국가보훈부 사진제공)

가는 대륙횡단 열차를 타려고 페리부두에 도착한 스티븐스를 향해 미리 기다리고 있던 전명운이 먼저 저격을 시도했으나 권총이 불발되자 맨몸으로 격투를 벌이는 도중, 뒤에 나타난 장인환의 총에 맞아 사흘 후에 사망

안중근 의사의 공판 기록에도 이치관의 하숙집에서 여러번 전명운을 만나 보았다는 진술이 있다.

12년 후 자유의 몸이 된 후 장인환도 대한인국민회 부의장으로 활동하는 등 두 의사는 미주 지역에서 평생

가리킨다.

하지만 바닥에는 어떤 흔적도 없다. 처음부터 아무것도 설치되지 않았으니 있을 리가 없다. 샌프란시스코 시청은 1898년에 건축된 페리빌딩을 자국의 역사기념물로 지정하고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나 두 의사와 상관없이 이 도시의 대표적인 옛 건물인 까닭에 보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샌프란시스코를 찾아온 대부분의 한국인은 이곳이 우리 역사 교과서에 등장하는 페리부두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

광복 후 일본과 적대적이었던 중국, 카자흐스탄, 러시아 등에 기념관이나 사당 아니면 돌비석이라도 세워져 있고 심지어는 일본 몇 곳에도 최익현 순국비나 운동주 시비 등이 존재하지만 페리부두 사건은 친일파 미국 외교관이 조선인에게 죽임을 당한 장소라서 그런지 어떤 표시도 발견할 수 없다.

1903년 3월 재미교포 장인환·전명운 의사를 을사늑약 암약 해온 미국인 스티븐스 암살

했다. 이날의 피습 사건은 샌프란시스코 지역 언론은 물론, 뉴욕타임스까지 대서특필하면서 아메리카 대륙은 물론, 중국, 유럽, 러시아에까지 사건 경위가 상세히 알려졌다.

처음 미국 여론은 “노란 얼굴의 동양인 두 명이 감히 미국의 고위급 외교관을 습격했다”였으나 이후 “스티븐스를 앞세운 일본의 조선 침략에 항거하기 위해 두 애국 청년이 일으킨 독립전쟁의 하나”로 세계의 여론이 바뀌면서 장인환 의사는 ‘애국적 환상에 의한 2급 살인’으로 징역 12년을 받았고 전명운 의사는 ‘살인미수’로 기소되었으나 판사는 스티븐스 사망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며 구속 3개월 만에 보석으로 석방했다.

그해 전명운은 도산 안창호 선생이 주도하는 공립협회 특과원으로 유럽 대륙을 거쳐 러시아 연해주에 도착하자 독립운동기지 건설에 힘썼고, 현지에서 체류하던 안중근 의사를 여러 차례 만나 자신의 스티븐스 저격 경험을 상세히 전달했을 것이라고 사학자 고 윤병석 교수는 평가했다. 또한

을 독립운동에 헌신하다가 해방된 조국 땅을 밟아보지도 못한 채 고독한 독립운동가의 삶을 마감했다.

역사학자들은 장인환, 전명운 의사의 스티븐스 주살 사건을 독립운동사에 빛나는 의열투쟁의 효시라고 평가한다. 1909년 봄에 이재명 의사가 매국노 이완용을 습격한 명동성당 앞 의거, 10월에는 중국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거, 1932년 윤봉길 의사의 상하이 훙커우 공원 폭탄 투척 의거들이 줄지어 일어났기 때문이다.

태평양 연안의 샌프란시스코는 계절을 가리지 않고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미항으로 유명하다. 지금도 금문교를 비롯한 해안 지역을 둘러보는 여객선의 출항지인 페리부두는 한국인 단체관광객들이 여행 중에 찾아보는 역사적 장소로 의미가 깊다. 건물 밖 광장에서 인솔 가이드는 “바로 이곳에서 전명운, 장인환 의사가 친일 미국인 스티븐스를 권총으로 저격한 미주지역 독립운동의 시발점”이라 설명하면서 콘크리트 바닥을

또 안창호 선생이 샌프란시스코에서 공립협회를 창립했다는 건물은 가정집으로 변했고 초기 이민 동포들의 정신적 위안처였던 한인교회는 이미 오래전에 중국인 사찰로 변해 흔적도 없는 상태여서 페리부두 의거지도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상태라고 한다.

정부는 매년 3·1절이나 광복절에 숨겨져 있는 애국지사를 찾아내 훈장을 수여하고 해외의 순국선열을 봉환하는 행사를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페리부두 의거지 등 해외에 존재하는 항일역사 유적을 제대로 보존하는 데 국력과 노력을 쏟아야 한다.

독립유공자에게 건국훈장을 추서하고 애국지사에게 대한 물질적 보상도 당연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자칫 흔적까지 사라질 수도 있는 해외 독립운동 사적지이기에 국민 모두의 관심도 필요하다. 특히 대한민국 독립운동에서 의열투쟁 제1호로 기록된 페리부두 현장의 표지물 설치 문제에 대해 국가보훈부와 외교부는 미국 정부와 적극적인 협상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이게 나라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향숙
본회 부회장
수필가

2026년 병오년이 기대 속에 밝았지만 요즘 뉴스를 보기가 너무나 불안하다. 사상 초유로 현직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몰아서 부부를 동시에 수감하고 8개 혐의로 재판 중이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은 한국이 한·미 무역협정을 위반했다며 2월 23일 쿠팡 임시대표 로저스를 미국 국회로 불러 청문회를 열었다. 검찰청 폐지, 8개월간 탄핵 29건. 입법 폭주, 수출 효자 종목인 대미 반도체 수출에 25%라는 관세 폭탄, 소상공인들의 폐업 속출, 환율 폭등, 주식시장 불안, 부동산 폭락 등 내우외환으로 정치·경제 모두 파탄에 이른 건 국민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다. 정치인들은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계파 싸움에만 몰두하느라고 영일이 없다. 여기저기서 탄식이 나온다.

“이게 나라냐.”
예전에는 나라가 태평하면 나랏님 이름을 백성들이 모르고도 편안했다고 한다. 외침으로 인한 전쟁이 없고, 기근으로 굶주림만 없다면 임금이 누군지 관심조차 없었다. 지금도 그런 세상에 살고 싶다. 작금의 우리나라는 어떤가. 대통령 중 네 명이 수감되고, 한 분은 자살하고, 한 분은 총격으로 시해 당하고, 또 한 분, 대한민국을 건국한 최초의 대통령은 그리운 모국 땅을 밟지도 못한 채 타국에서 한 많은 생을 마쳤다. 이렇게 불행한 나라, 불행한 국민들이 세상 어디에 또 있나. 세상 어디에도 이런 나라는 없다. 이게 동방예의지국인가. 예의는 다 어디로 사라졌나. 정치인들은 그럼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네편 내편 편 가르기에만 골몰하고 권력을 좇아서 이합집산, 배신이 난무한다. 국민들이 원하는 건 딱 하나. 신문·방송 뉴스를 편안하게 시청하고, 가족들과 K-POP 음악도 들으면서 도란도란 차 한 잔 마시는 그런 세상에 살고 싶다. 그게 그리 어려운지 미처 몰랐다. 국민들의 고통에 귀 기울이지 않는 정치인들에게 하늘이 대신 전해주기만을 학수고대 한다.

나 개인으로도 새해를 경악할 모함



적토마처럼 활기차게 모든 악이 물러가고 좋은 일만 가득한 2026년이 되기를...나라 꼴은 어지러워도 이 또한 지나갈 것이란 희망의 싹을 키우며 살아야겠다.

으로 맞았다. 새해 첫날 낮에 한가하고 편안하게 막 점심 식사를 끝내고 커피를 마시는데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받고 기겁했다. 내가 전혀 알지도

표자의 이름이 도배된 후, 결말은 오랜 세월 후, 주인공 레너드가 범인 테디를 애당초에 이미 죽였다는 사실을 읽은 채 엉뚱하게도 새로운 가상

것 같다. 그러니 언제까지나 절망하고 우울할 수는 없다. 이젠 희망을 가져야 할 때다. 절망하고 욕하고 모함하는 일은 없어야겠다. 올해는 붉은 말띠의 해다. 말은 원래 강력한 에너지를 의미하는데, 그런 기운과 전진을 위해서는 물을 먹이는, 즉 에너지를 축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삼국지에서 관우와 생을 함께 한 천하의 명마 적토마는 토끼처럼 빠르다는 붉은 말이다. 말이 뜻하는 차분함과 이성, 지혜를 갖추면서 동시에 불과 같은 색의 강력한 열정을 잘 조화시켜야 한다. 말에 열심히 물을 먹이고 함께 달린다면 지금의 고민은 사라질 걸로 확신한다.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간절히 평화를 기원한다면 하늘은 이 나라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다. 모두 기수가

입법 폭주-계파싸움-관세폭탄 등 ‘내우외환’ 답답하고 우울증 없는 세상 그날 학수고대

못하는 사실을 내가 왜곡해서 누군가에게 발설, 명예를 훼손했다는 지인의 문자 폭격 내용이다. 나는 역으로 그 문자를 받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처음 알았다. 몇 차례 문자를 주고받았고, 해명에 나섰지만 행복한 시간을 분노로 바꾸고 이틀간 잠을 설쳤다. 왜 하필 그 사람은 새해 첫날에 그런 문자를 보냈을까. 그게 더 화가 났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차라리 단기기억상실증이라도 걸리고 싶다. 영화 <메멘토>처럼...1973년에 개봉된 미국 영화인데 얼마 전에 인터넷으로 감상한 스틸러다. 강도에게 부인이 죽은 끔찍했던 그 날, 남편도 머리를 다치고 심각한 단기기억상실증에 걸렸다. 새로 일어나는 일을 10분이면 모두 잊어버리는 가공할 장애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죽인 자를 찾아내 복수하겠다는 집념에 불탄다. 기억을 자주 잊기 때문에 “기억할 수 없다면, 사진, 메모, 문신에 의지하자.”라는 집념 하나로 살인범 이름이 집안 모든 벽과 공간마다, 심지어는 자기 온 몸에 새겼다. 일상생활은 다 무너졌다. 그가 써놓은 살인범 이름이 가득 메운 영화의 그 장면은 참혹하고 끔찍했다. 그렇게 집안과 몸에 온통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살해 목

의 범인 ‘존 G’를 만들어 복수를 계획했다는 허무한 반전으로 끝난다.

지금 이 나라의 정치는 반대편은 무조건 표적 삼아서 공격하는 게 그 주인공의 집착과 같아서 무섭다. 그러나 희망을 버릴 수는 없다. 정의가 살고 진실이 명약관화하게 드러나고 <메멘토>처럼 엉뚱하고 그릇된 집착이 허무하게 끝나는 반전되는 희망을 품어 본다.

옛 설화에 이런 얘기가 있다. 어느 집에 한 처녀가 찾아가 문을 두드렸다.

“누구세요?”
“저는 행복입니다.”
“아, 그러세요?”
그녀는 환영 받으며 집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잠시 후 다른 처녀가 또 문을 두드렸다.
“누구세요?”
“저는 방금 들어간 행복의 쌍둥이 동생 불행입니다.”
“돌아가세요.”
“안됩니다. 우리는 쌍둥이라 헤어질 수 없습니다.”

이 얘기는 행복이 있는 곳에는 불행도 뒤따르고, 불행이 있는 곳엔 행복이 따른다는 뜻이다. 오른손에 행복을 쥐고 있으면 왼손은 불행을 쥐고 뒤에 숨었다가 까꿍하고 나오는

되어 적토마를 타고 힘차게 달리기를 기대한다. 묵은해의 우울을 버리고 새해엔 새 부대에 새 말먹이와 물을 담아야겠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흔히 하는 말이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은 이스라엘의 다윗왕 때 시작된 명언이라고 알려져 있다. 다윗왕은 반지 세공사에게 반지를 주문하면서 “전쟁에 이겨도 교만하지 않고, 절망할 때도 이겨낼 수 있는 문구를 새겨 넣어라.”고 지시했다. 고민하던 세공사는 지혜의 상징 솔로몬에게 자문을 구했는데 솔로몬이 한 말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였다고 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를 좌우명으로 삼고 올해 병오년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달린다면 반드시 올 한해가 허무함을 남기지는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 최선을 다한다면 배신은 절대 없고, 아름다운 꽃으로 화려하게 만개하는 게 진리다. 답답함과 우울증 없는 세상이 되는 그날을 학수고대하며 묵묵히 그날까지 힘껏 노력하며 기다려야겠다. 전에 고 김영삼 대통령이 한 명언이 있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새벽은 머지않아 온다. 맞을 준비를 하면 된다.☞

회우 광장

‘1인4역’ 했던 아내와 생이별 고통

결혼 50년만에 파킨슨병으로 요양병원 투병



윤재홍
본회 논설위원
전 KBS 제주방송총국장

필자는 아내를 홀로 남겨두고 병원에서 퇴원했다. 지난 해 12월초 눈보라가 휘날리는 매서운 한파가 계속될 때였다. 부부가 함께 입원했다가 아내와 생이별을 한 것이다. 필자는 심장동맥과열이란 큰 수술로 생과사의 갈림길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 요양병원에 옮겼다. 두 아들은 4년동안 파킨슨증후군으로 자택에서 요양 중인 아내를 필자가 있는 요양병원으로 바로 옮겼다. 그동안 우리 부부는 건강하게 잉꼬부부처럼 잘 살아왔다. 그런데 노후에 부부가 함께 요양병원신세를 지게 됐다. 저절로 한숨이 나온다. 아내는 4년동안 정성껏 의료진의 진료로 자택에서 치료를 받았다. 요양보호사와 아들의 돌봄과 야간에는 필자의 도움으로 오랫동안 진료를 받아왔으나 건강이 점점 무너져갔다. 아내는 사람도 알아보지 못한다. 음식도 코를 통해 흡입기로 이용한다. 말도 못하고 눈으로만 의사표시를 겨우 할 정도다.

필자는 일주일에 3번 아내를 찾아가 눈빛으로 대화를 나누고 온다. 두 아들과 며느리도 일주일에 한 두번정도 아내를 보살핀다. 필자가 빨리 건강을 회복해야 아내를 돌보고 가정을 이끌어 갈수 있다. 굳센 의지와 강한 인내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두 아들에게 부모를 돌보아야하는 큰 고통을 더 이상 주지 않도록 해야 하는 목적도 있었다. 당시 필자는 혼자 걸어야 퇴원할 수 있기 때문에 휠체어를 빨리 벗어나야 한다. 혼자 걸을 수 있도록 재활운동에 이를 악물고 매달렸다. 필자의 강한 의지력으로 한달만에 혼자서 걷기 시작해 간호사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기쁨의 눈물이 쏟아졌다. 너무나 기뻐 혼자 걷는 모습을 핸드폰영상으로 촬영해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보내기도 했다. 결국 아내를 돌보면서 두 아들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가장의 자리를 되찾아 퇴원할 수 있었다.

사람은 때가 되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 부부라는 이름으로 평생 살아간다. 필자는 대학1학때 2학기 등록금이 없어 군에 입대했다. 3년간 군복무후 복학하자마자 대학생 신분으로 결혼했다. 나이26세 대학생이 1년아래의 신부를 맞았다. 한마디로 대학생 가장이 되었다. 학비와 결혼생활비 등 모두를 책임지는 대학생 가장이 된 것이다. 필자는 중·고등학생 그룹과외 4군대를 뛰어 다니며 학생들을 가르쳤다. 나머지 시간은 쪼개 대학전공 공부에 전념했다. 아내는 대기업에서 퇴직하여 자택에서 자신이 전공한 피아노개인지도로 신혼살림을 윤택하게 했다.

지금 생각하면 신혼부터 70대까지 아내가 1인4



사자와 소의 사랑이야기에서 볼수 있듯 부부행복의 지름길은 ‘소통’이다.

역의 고된 일 때문에 과로로 혹사당한 피곤이 누적되어 70대 노후에 고치지 못할 병에 걸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무척 아프다. 아내는 남편의 기사생활 뒷바라지와 홀시어머니를 모시며 살았다. 더구나 개구쟁이 두 아들의 엄마로서 눈코 뜰새가 없었다. 또 광주에 사는 누님의 딸을 외할머니가 키운다고 데려왔으나 결국 뒷바라지는 아내의 몫이었다. 이런 가운데 자택에서 피아노 레슨까지 하면서 잠시도 휴식시간이 없었다. 아내는 며칠씩 잠을 못자도 전혀 피곤하지 않다며 건강을 과시하기까지 했다. 여기에도 연희동에서 가까운 연

고 있다. 자택과 요양병원에서 노년의 아픈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잠자리에 들면서 밤마다 저절로 한숨이 나온다. 만일 아내가 건강을 되찾아 자택으로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실현되기 어려운 꿈이다. 그러나 이제 다시 부부가 건강한 노후를 함께 산다면 사랑을 실천해보고 싶은 충동도 있다.

게리 채프먼의 베스트셀러 ‘사랑의 언어’란 책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다. 이 책의 주요내용은 사람마다 사랑을 주고받는 방식이 다르지만 사랑의 언어가 서로 소통과 공감의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은 때가 되면 대부분 남

베스트셀러 ‘사랑의 언어’ 사자와 소 반면교사 부부소통이 행복의 지름길 깨달았으면 ...

대와 이대 음악대학원에 진학해 피아노공부를 계속했다.

지금생각하면 이렇게 젊었을 때 누적된 과로가 결국 70대 노후로 가면서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가 된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된다. KBS차장 시절 한국언론재단에서 10년 이상된 기자에게 가족과 함께 외국유학을 1년씩 보내주는 제도가 있었다. 필자는 이 시험에 합격해 미국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를 1년간 유학을 했다. 미국에서의 생활은 언론재단에서는 미국생활비를 충분히 주었다. 그러나 아내는 미국에서도 혼자 노력해 학비를 벌었다. 교포자녀들의 피아노레슨과 교포자녀돌보기, 한국인 상인들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해 번 돈으로 미국대학에서 피아노공부를 계속했다. 심지어 아내는 또 이발비용을 아끼려고 필자와 두 아들의 이발을 직접해서 돈을 절약했다.

지금 크게 후회하는 것은 아내가 모든 것을 멈추고 미국생활만이라도 여유 있게 여행을 하며 충분한 힐링을 할 수 있도록 말리지 못한 것이 한 없이 후회된다. 우리 부부는 70대 후반까지 잉꼬부부로 잘 살다가 80대로 진입하면서 이별 아닌 별거를 하

자와 여자가 만나 부부라는 이름으로 평생을 살아간다. 부부의 삶은 행복과 고통, 사랑과 미움이 끊임없이 반복하는 긴 여정이다. 따라서 부부는 반려자이며 수행자다. 부부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사이에 서로 공감하며 슬픔과 고통, 기쁨과 행복을 함께 느껴야 한다.

80대의 남편은 사랑하는 아내에 대한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아내의 정신적, 신체적 모든 분야를 체크해 노후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무엇보다 부부소통이 행복의 지름길이다. 사자와 소가 결혼했다(사진). 사지는 소를 너무 사랑해서 힘들게 사냥한 맛있는 고기요리를 소에게 주었다. 소는 사지를 너무 사랑해 유기농고급야채들로 가득한 샐러드요리를 사자에게 주었다. 그러나 둘은 너무 사랑했지만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해 결국 싸우고 서로를 의심하며 경계하기에 이르렀다. 참된 부부, 건강한 부부, 노후에 천수를 누리기 위해서는 사자와 소의 사랑이야기를 참고해야 할 것이다. 필자에게는 다시 올수 없는 부부의 행복은 이제 꿈속에서나 실현될 수 있는 부부의 진실한 사랑을 기대해보고 싶다.☞

11박12일 히말라야 품에 안겼다

아내와 안나푸르나 트레킹...하루 7시간씩 걸어

‘에어워커’의 세계 여행 ②

2008년 6월 나는 <버킷 리스트>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다. 죽음이 임박한 두 노인이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의 목록을 작성해놓고 실천에 옮기는 과정을 담은 영화이다.

2012년 이순을 앞두고 나도 이제 인생을 정리해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회갑 프로젝트>를 설계했다.

그 중의 하나가 히말라야 트레킹이었다. 그해 11월 2일부터 11박 12일 일정으로 나는 아내와 함께 동네 산악회를 따라 안나푸르나 트레킹을 다녀왔다.

동네 산악회 따라 11박12일 일정으로 도전

이무렵 나는 3년째 동네 산악회에 가입하여 월 2회 전국 명산을 섭렵하며 체력을 다져오던 터였다. 지리산 종주는 물론 설악 공룡능선도 다녀왔다.

하지만 막상 히말라야 등정 계획을 세우려니 막연하고 두려웠다. 평소 고혈압과 혈당약을 복용하는 나로서는 더욱 불안했다.

히말라야 정보를 수집하던중 동네 법화산에서 민속산악회의 <히말라야 트레킹> 안내 공지를 보게 되었다.

비용도 다른 여행사 상품보다 50여만 원 저렴하였고 동행인들이 동네 사람들이라 분위기가 너무 좋았다.

포터, 요리사 등 동반하고 하루 7시간 트레킹

안나푸르나 트레킹 코스는 대부분 거의 비슷하다.

우선 नेपाल의 수도 카트만두로 날아가 국내선을 바꿔 타고 포카라로 간다. 다시 버스로 한시간 30분 정도 달려 나아풀에 도착한다. 이곳에서 무거운 짐은 포터에게 맡기고 간단한 배낭만 짊어지고 산행을 시작한다. 대략 2시간 터울로 롯찌(산장)가 나타난다. 여기서 하룻밤 묵거나 점심을 먹는다. 혹은 잠시 쉬어 가기도 한다. 한국 단체 트레킹의 경우 전문 요리사(?)가 따라 붙는다.

우리 일행의 경우 트레킹동안 먹을 음식재료를 짊어지고 5명이 동행했다. 이들은 우리보다 먼저 롯찌에 도착하여 따뜻한 차와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주었다. 요리사 외에 전문 가이드 2명, 포터 9명 포함해 우리 일행은 모두 33명의 대부대였다.

등산 초보자도 거뜰하게 4300m ‘베이스 캠프’도달

하루 걷는 시간은 평균 7~8시간. 코스는 높낮이가 있지만 무난한 편으로 위험한 구간은 없었다. 문자 그대로 트레킹 코스인 셈. 전문 산악인이 아닌 일반인도 얼마든지 도전이 가능하다. 실제로 우리 일행 중엔 동네 산악회만 몇 차례 올라본 등산 초보자도 끼어 있었는데 무난하게 ABC(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까지 올라갔다.

3,000m 고지대에 접어들며 샤워는 물론 세수도 삼가며 대비한 덕분에 우리 일행은 모두 최종 목적지인 ABC를 밟을 수 있었다.(하산 길은 4명이 헬리콥터를 이용해야 했지만)

밤이 너무 길었다. 5시가 조금 넘으면 어두워지기 시작하여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어가게 된다. 딱딱한 나무 침대에 침낭을 깔고 그 속에 들어가면 피곤에 지쳐 깊은 잠에 빠져 들었다.

하지만 조금 익숙해 진 뒤엔 그 기나긴 밤이 참으로 고통스럽기도 했다. 전기 사정이 좋지 않아 책읽기도 어려웠고 준비해간 영상도 배터리 사정으로 볼 수 없었다.

날씨는 좋았다. 단 하루도 흐리거나 비오는 날이 없었다. 기온도 새벽



필자 부부가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에서 정상정복의 기쁨을 나누고 있다.



필자가 트레킹도중 환상적인 풍경을 바라보고 있다.

물이 폭포수처럼 흘러 내렸다. 백년설이 녹아 내리고 있기 때문이었다.

3천m고지 “텐트숙박”에 1만5천원

아내와 나는 그무렵 맛들인 “캠핑을 하고 싶다”는 말을 되풀이하다 결국 그 꿈을 이루었다. 시누와 롯찌에서였다. 숙소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부부도 같은 방을 사용하지 못할 형편이었다. 4인실에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묵어야 한다는 가이드 설명에 우리 부부는 곤혹스런 입장이 되었다.

고 더럽고 온통 먼지 투성이었다. 우리는 नेपाल의 첫 밤과 마지막 밤을 이곳에서 보냈다.

공항을 나서자마자 후끈한 열기 속에 폐차 직전의 각종 차량이 무질서하게 공항 주차장을 점거하고 있었다. 가이드는 카트만두가 <신의 도시>라고 말하며 6·25때 한국에 원조도 했을만큼 부유한 나라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도로는 비좁고 포장조차 돼 있지 않아 도무지 사람이 살만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청정한 대자연...밤하늘의 은하수 장관

과 한 밤중엔 2~5도, 낮엔 15~20도. 4,300m ABC에 오를 때까지 눈구경조차 못했다.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은 밤하늘의 별들과 맑고 깨끗한 계곡의 물, 그리고 순박한 그 나라 국민들의 삶의 모습이었다. 책에서만 보던 은하수를 처음 보았고 “별이 반짝인다”는 의미도 알게 되었다. 아마도 60평생 보아 온 별들보다 몇 배는 더 많은 별들을 보았으리라.

백년설이 녹아 계곡엔 맑고 깨끗한

었다. 그 순간 내 시야에 뒷마당에 처있는 텐트가 들어왔다.

그 곳에서 잘수 있는지를 타진하니 “오케이”. 숙박 비용은 단돈 1만5천원. 우리 부부는 히말라야 기슭 럭셔리(?)한 텐트 안에서 꿈같은 하룻밤을 보낼 수 있었다.

카트만두는 ‘신의 도시’ 관광여건 크게 개선

네팔 수도 카트만두의 첫 인상은 낡

집이고 가게고 물건이고 온통 흙먼지 범벅이었다. 건물은 또 얼마나 낡고 지저분했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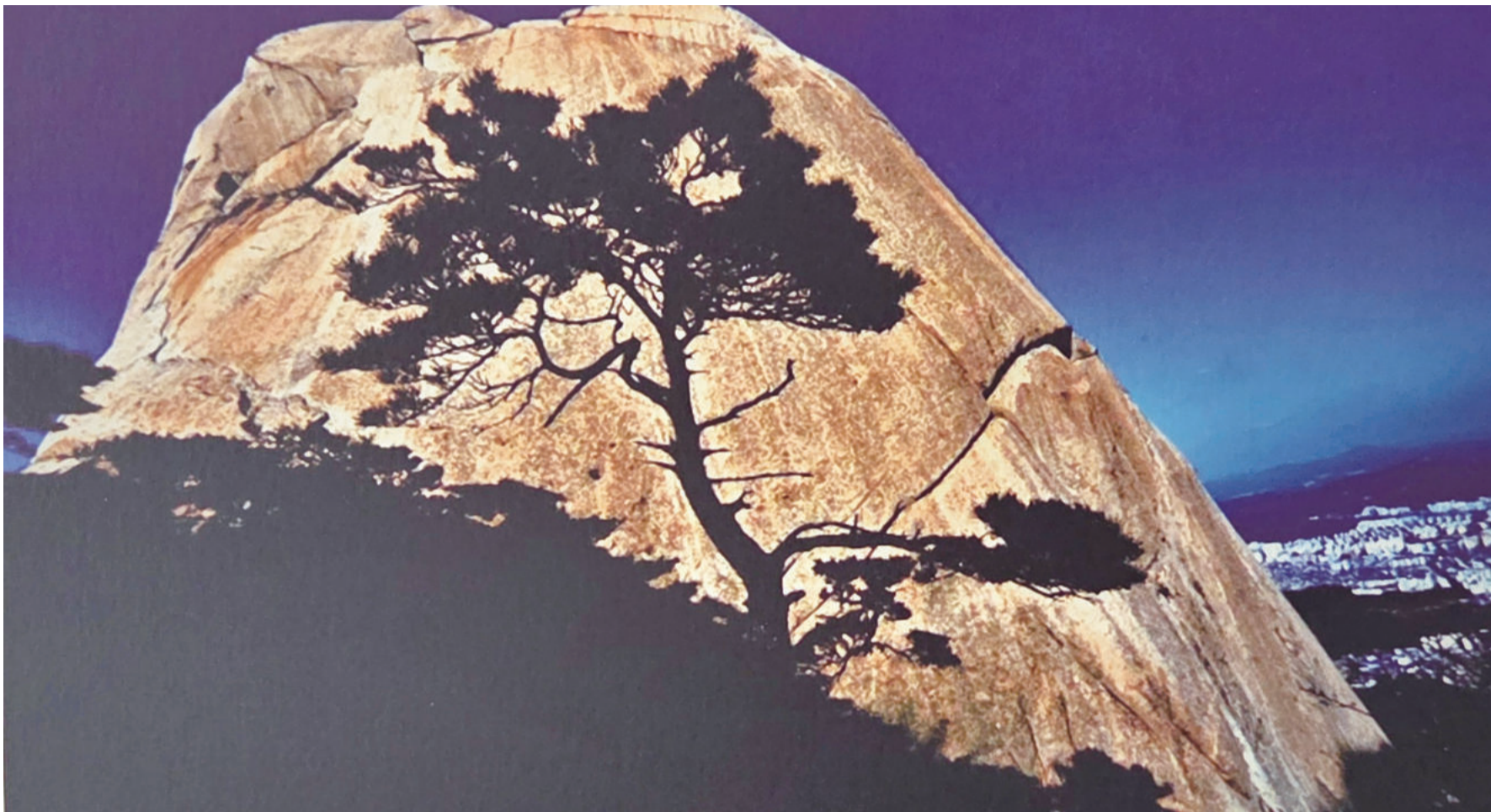
(15년여가 지난 요즘은 카트만두도 많이 깔끔해졌다고 한다. 도로 포장도 물론 폭도 넓어져 교통여건도 크게 좋아졌다)

그런데 नेपाल제 화장품은 공해없는 천연물질로 만들어져 인정을 받고 있다.☞

<박진환 J & J 미디어 대표>



Zoom in 봄이 오는 길목...북한산 진달래능선서 바라본 인수봉



봄이 오는 길목 앞에 우뚝 선 북한산 인수봉(仁壽峰). 아아! 인수봉 너는 이 화사한 봄을 맞으려 북풍한설(北風寒雪) 찬바람 속에 그렇게 버티고 서 있었던가.

북한산의 제2봉우리로 높이 811m. 장비를 가지지 않은 일반 등산객들은 정

상에 오를 수 없는 영봉이다. 올려다보면 아이를 업고 있는 어머니 모습이라고 해서 부아악(負兒岳)이란 옛 이름이 남겨져 있다. 봄의 서기를 품은 전면의 볼이 어느덧 불그레하다.

사진 : 전민조 본회회우(전 동아일보 출판사진부장)

명품인생

행운이 들어오거던 의자를 권하라

흔히 쓰는 말은 아니지만 ‘축견 폐일(蜀犬吠日)’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옛 중국 촉나라의 지세가 험준한 데서 비롯된 말인데 들어보면 그 뜻이 그럴싸하다. 촉나라는 사방 첩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좀처럼 해를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모처럼 해가 제대로 한번 하늘에 나타나면 그것이 신기해서 개들이 일제히 짖어댄다. 촉나라 개가 해를 보고 짖는다는 것이 바로 이 蜀犬吠日이다. 뜻으로는 ‘견문이 좁아서 편협한 견해를 지닌 사람’쯤 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 어렵고 천혜의 방어 여건을 갖춘 촉 땅은 중원에서 패배한 영웅들이 이곳으로 은거해 한동안 운기조식하면서 힘을 기르는 지역으로 자주 활용되었다. 이들 영웅들에게 한 번 들어갔다 하면 아주 못 나올 듯한 곳에서 오히려 잘 되어서 나오는 곳이 이곳이었다. 같은 촉나라 땅에 발을 딛고 있어도 축견(蜀犬)과 영웅은 하늘을 보는 방식이 다른 것이다.

하늘을 어떻게 보느냐, 세상을 어

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지는 것을 이 고사성어가 대변해 준다.

*고려 말~조선 초 일본 해적들이 한반도를 침입 약탈을 일삼던 사건을 ‘왜구 침범’이라 한다. 14세기 일본은 남북조 내란과 전쟁으로 사회·



경제적 혼란이 심화되자 일부 지방 세력이 해적으로 변해 한반도와 중국 연안을 침범했다. 식량·생필품 약탈이 주요 목적이었다. 40년에 걸쳐 지속된 왜구의 침입은 고려 사회 전

반에 큰 충격을 주었고, 결국 나라 멸망의 배경 중 하나로 지적될 만큼 심각한 피해를 남긴 역사의 흔적이 었다.

일본의 왜구 집단 최전선인 대마도는 토지가 협소하고 척박하여 식량을 외부에서 충당해야 했다. 당시 일본 막부에서는 왜구의 도적질을 금지하였으나 흉년이 들어 식량이 부족해진 왜구들이 경상도는 물론 황해도까지 와서 약탈을 자행하기 일쑤였다.

의 선구자인 셈이다. 우리나라 네 번째 잠수함이 ‘박위함’으로 명명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박위장군은 고려 왕조의 회복을 위해 점을 친 일이 화근이 되어 이방원의 추종세력에 피살되는 비운의 영웅이 되었으며 역신의 누명을 쓰고 역사의 뒤안길로 밀려났다.

공신이었던 그가 골육상쟁의 와중에서 비명으로 세상을 떠나니 그 후 손들도 각지에 흩어지면서 유적조차 보존하기 어렵게 됐다. 이런 연고로 우리 해군 사에 길이 빛날 박위 장군의 기록이 일부 사서에만 단편적으로 실려 그 자취를 찾기가 쉽지 않았

하늘을 어떻게 보느냐...결과 크게 달라

특히 우왕 재위 14년간 378회나 침입한 이들 왜구의 소굴을 소탕하고자 마침내 1389년(공양왕 1) 2월 박위(朴葦)장군(영정사진)은 병선 100척을 이끌고 대마도를 공격했다. 여기서 박위장군은 왜선 300척을 불사르고 이들에게 잡혀갔던 고려인 남녀 100여 명을 구해오는 혁혁한 공훈을 세웠다. 이를테면 그는 우리 해군

던 것이다.
*인생이란 마치 수학의 0과 같은 것. 그 자체로는 별 것 없는 것 같지만 다른 것에 붙여지면 가치가 크게 불어난다. 개울 바닥에 돌이 없다면 시냇물은 노래를 부르지 않을 것이다. 행운이 들어오거던 의자를 권하라! ☞

〈강이산·극작가〉

이승만, 진해에 첫 이순신 동상 세웠다

교과서에 안 나오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秘史



김동철

본회 이사
이순신인성리더십포럼 대표

1. 이승만과 김구의 존경과 흠모를 받은 이순신 장군

진해에 대한민국 최초의 이순신 동상을 세운 이승만 초대 대통령

경남 창원시 진해구 도천동 중앙광장에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조형물 2개가 우뚝 서 있다. 북원 로터리에선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세운 이순신 동상이 있고 남원 로터리에선 김구 선생의 친필 이충무공 시비가 세워져 있다.

어떤 연유가 있었던 것인가?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은 임진왜란이 발발한 지 6주갑이 되는 해였다. 1주갑이 60년이니 임진왜란 발발 360년이 되는 해 4월 13일 이순신 동상이 대한민국 최초로 진해에 세워졌다.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요인과 시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동상 제막식이 성대하게 거행됐다.

당시 북한의 불의의 침략을 받은 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지난날 우리 바다를 지켜준 이순신 장군을 앞세워 북한의 침략을 하루빨리 물리치려는 국난극복의 의지를 만천하에 보여주었다. 이에 앞서 1949년 8월 이승만 대통령과 대만 장개석 총통의 진해회담이 대통령진해 별장에서 열렸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대만과 함께 북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만의 장개석 총통을 만나 의견을 나누었다.

1950년 11월 11일 해군 창설 제5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당시 통제부사령관 김성삼 소장이 경남도지사 양성봉과 지역유지들에게 동상 건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때 일본군을 물리친 승리의 화신이었고 임진왜란을 종결시킨 최고의 공로자입니다. 그 해전의 터가 진해 앞바다이므로 이곳에 이순신 장군 동상을 세워야 합니다.” 곧이어 마산시청 시장실에서 동상건립기성회가 조직되었다. 마산·창원·통영·고성·김해 등지에서 모금한 성금은 3천만 원이었다. 조각가인 윤희중을 초빙하여 430만 원으로 모형 제작하기로 했다. 그후 1951년 3



1952년 이순신 동상앞에서 연설하는 이승만 대통령 .



김구 친필이 새겨진 이충무공 시비.

이 시비는 광복 이듬해인 1946년 5월 대한민국 임시주석이었던 백범 김구 선생이 진해를 방문하여 해안경비대 총사령관 손원일의 안내로 장병들을 격려하고 조국 광복을 기뻐하며 남긴 친필시를 화강암에 새겨 만든 것이다. 비석에는 ‘誓海魚龍動(서해어룡동) 盟山草木知(맹산초목지)’라고 쓰여 있다.

차 고성 땅 적진포해전을 끝내고 여수 본영으로 돌아왔을 때 전라 도사 최철견으로부터 선조가 의주로 피란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 참담한 소식을 접하고 통분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임진년 4월 30일 한양을 떠나 몽진(蒙塵) 길에 오른 선조는 5월 7일 이순신이 옥포해전에서 승리한 바로 그날 평양에 도착했다.

1952년 한국전쟁 국난극복 ‘의지의 표상’ 삼아 1948년 김구 선생 친필 이충무공 시비 세워

월 이은상·김영수·권남우·이은호 등이 세 차례에 걸쳐 수정·보완하여 4월 19일 모형 제작을 완료했다.

청동주물 동상은 높이 4.97m, 지면에서 좌대까지는 6.14m로 합치면 11.11m로 해군창설일(11월 11일)을 나타낸다. 동상 좌대 중앙 부분에는 ‘忠武公李舜臣像(충무공이순신상)’이라고 새겨져 있다.

1952년 이후 해군이 주관하여 충무공 탄신기념일을 맞이하여 장군의 애국애민정신을 선양해오다 1963년 이충무공선양회에서 매년 군항제를 개최하고 있다. 봄철 벚꽃이 흠날리는 거리에 해군 군악대와 해병대 의장대가 펼치는 퍼레이드는 가히 장관을 이룬다.

김구 선생 친필 이충무공 시비(근대 건조물 2호)

이순신 장군의 진중음(陣中吟 병영에서 읊는 시) 원문은 다음과 같다.

천보서문원 군저북지위(天步西門遯君儲北地危) 임금의 수레 서쪽으로 멀리 가시고 왕자들은 북쪽에서 위태로운데

고신우국일 장사수훈시(孤臣憂國日壯士樹勳時) 나라를 근심하는 외로운 신하 장수들은 공로를 세울 때로다

서해어룡동 맹산초목지(誓海魚龍動盟山草木知) 바다에 서약하니 어룡이 감동하고 산에다 맹세하니 초목이 아는구나

수이여진멸 수사불위사(讐夷如盡滅雖死不爲辭) 이 원수들을 모조리 무찌른다면 이 한 몸 죽을지라도 마다하지 않으리

이 시는 이순신이 1592년 5월 8일 1

그리고 일본군 제1군장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의 추격이 있자 6월 11일 평양성을 떠나 6월 22일 의주에 당도했다. 조선의 운명은 풍전등화 신세였다.

김구는 1946년 9월 15일 부산을 거쳐 진해에 도착했다. 이튿날 해안경비대 열병식에 참석한 뒤 경비선을 타고 통영으로 가서 임진왜란 때의 이순신 장군의 사적지인 한산도의 제승당을 방문했다. 충무공의 영정에 참배하고 나서 주위를 둘러보았더니 ‘제승당(制勝堂)’이라는 현판이 땅에 떨어져 있었다.

안내자는 일본 점령기에 댄 것을 아직 달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구는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만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여 당장 부착하게 하고 진해로 돌아왔다.☏



여섯살때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

오!내고향 부산 범일동 찍고 인천으로 ...

오사카서 태어나 유년은 부산 - 중·고교는 인천에서 인생유전 속 '영원의 고향' 사진 귀착



전민조
 본회 회우·전 동아일보
 출판사진부장

나의 출생지는 일본 오사카. 당시 태평양 전쟁의 와중에서 태어났다. 1941년 12월 7일 일본군이 하와이의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면서 시작된 태평양 전쟁은 제2차 세계 대전의 주요 전선 중 하나로 1945년까지 계속됐다. 그 와중에 아버지는 일본을 떠나 고향인 부산 동래로 돌아왔다. 그때 나는 두살 배기 아기였으니 일본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아버지는 일제 강점기에 도쿄로 유학을 갔다가 전기와 기계의 기술자가 돼 일본 전기회사에 취업했다. 이때 어머니를 만나 결혼을 하고 그 2년 뒤 내가 세상을 본 것이었다.

귀국하여 부모님이 부산에 자리를 잡은 뒤 나는 국민학교 2학년까지 이곳에서 성장했다. 그러니 누가 뭐래도 나는 고향이 부산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

어머니는 처녀 시절부터 책 읽는 취미가 있어서 조국으로 돌아올 때 트렁크에 일본어로 된 세계명작 전집 50여권을 담아가지고 왔다. 톨스토이 등 세계문호들의 작품이 골고루 수록된 책을 읽으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부산항과 함께 내 눈에 오버랩 된다. 내가 군에 갈 때까지 집에만 오면 어머니는 늘 책을 읽고 계셨고 나는 그런 모습이 다른 어머니와 너무나 달랐다고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어린시절 부산의 범일동 주변은 6·25 전쟁으로 어딜 가도 미군들과 피란민들로 북적거렸다. 온통 피란민 투성이의 부산은 마치 콩나물시루 같았다. 휴전 직후라 동네 골목골목에는 팔이 잘려나가고 한 쪽 다리가 없는 장애인들이 밥을 구걸하며 여슬렁거렸다. 어머니는 그 시절 내게 '함부로 돌아다니면 위험하다'며 감싸려 했지만 나는 호기심이 많아서 미군들과 피란민들을 구경하는데 한눈을 팔았다.



월남 파병시절 군장을 한 필자모습.

휴전이 되면서 아버지는 인천 시청의 기술공무원으로 취직이 되어 우리 가족은 인천으로 주거지를 옮겼다. 나는 3학년으로 인천 동명국민학교에 편입을 하면서 국민학교와 중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인천에서 자랐으니 이리되면 인천은 나의 제2의 고향이 되는 셈이다. 부산도 그렇지만 인천 역시 많은 추억이 쌓인 곳이다.

나는 6남매의 장남이어서 학교만 갔다 오면 동생들을 업고 다니는 일이 많았고 5학년 시절부터는 물지게를 지고 50m나 떨어진 우물에서 물을 퍼오곤 했다. 지금도 내가 다녔던 인천 동명국민학교가 남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어머니는 인천 송림동에 도착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동네 아줌마들에게 "아이를 어느 학교에 편입시키면 좋겠느냐"고 묻는 것이었다. 어떤 아줌마가 동명국민학교 교장선생님이 특별하게 아이들을 잘

입대했다. 논산훈련소 30연대로 배치되었다가 한 달 후 베트남 파병에 지원서를 냈다.

대구 부근의 성서와 경산에서 유격 훈련을 받고 2개월 뒤 비둘기부대에 소속됐다. 그후 월남전은 치열했다. 동아일보 기자가 비둘기 부대를 취재하러 왔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전장에서 좌충우돌하다 보니 취미도 달라졌다. 그림에서 사진으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를 꿈꾸다 전장에서 사진가가 되기로 결심했다.

군복무를 마치고 알아보니 서라벌 예술대학(현재의 중앙대학교)에 사진과가 있었다. 그 사진과는 나를 위해 만들어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사진 전공 후 문공부가 주최한 전국대학사진공모전(1969년)에서 '최고상'을 받아 농협이 운영하는 '농협신문'에서 나를 불러들였다. 농협 봉급이 보통 직장보다 높았다. 그러나 나

골목대장 핏에 철길옆 군인에게 "기브미 초콜릿" 화가 꿈 버리고 파병 월남전서 사진기자 꿈 키워

동네에서는 중학교에 다니는 선배대장이 내 또래의 어린애들을 모아놓고 재미있는 구경을 시켜준다고 꼬득였다. 그 선배대장은 경부선 기차가 달리는 철로변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서 북으로 올라가는 군복 차림의 군인들을 보게했다. 그 엉터리대장은 우리가 그들을 향해 손을 흔들면 맛있는 것을 준다고 했다. 우리는 그말대로 열심히 기차를 향해 손을 흔들었는데 정말로 기차안의 병사들이 창밖으로 무엇을 던져주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재빨리 주워보면 그때까지 구경도 하지 못했던 초콜릿과 껌, 전투식량 C-레이션, 사탕과 과자 같은 것들이었다. 우리 아이들 대여섯 명이 주워 온 것들을 모아 놓으면 그 중학생대장이 좋은 것의 대부분을 자신이나 사탕 등을 한 두개 씩 나누어주곤 했다. 우리들은 불만이 가득했지만 항의하지는 못했다.

교육시킨다면서 이 사립학교가 좋고 하자 어머니는 바로 나를 데리고 가서 그곳에 편입시켰다.

어머니는 책과 함께 그림을 좋아하셨다. 그런 어머니를 내가 닮아서 흰 종이만 보면 낙서하듯 그림을 그렸다. 그런 내가 신통한지 어머니는 어려운 살림에도 내게 물감 도구를 사주셨고 나는 중고등학교(동산중고교)때 미술부 활동에 열중했다. 그 덕인지 고등학교 1학년 때 홍익대학 주최 전국중고등학교 미술실기 대회에서 '최고상'을 받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당시 김환기 미대 학장이 나에게 상장을 수여하는 사진이 신문에 게재된 것이 아닌가. 아버지가 구독하는 동아일보였다. 그때부터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러그러해서 대학도 홍익대학 서양화과를 선택했고 1차시험에 합격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내가 '적록 색약'이라며 불합격처분을 받았다. 고민 끝에 나는 바로 육군에

는 다시 언론사의 주류인 한국일보 사진부의 스카우트제의를 고맙게 받아들였다. 한국일보에서 4년 여. 이번엔 동아일보에서 나를 불렀다. 나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정적인 사진보다 도마 위에 얹어놓은 생선처럼 살아서 펄펄뛰는 생명력이 있는 사진을 좋아했다.

나는 사진을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 사진도 예술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한 점이 많았다. 내가 비록 눈의 장애로 미술대학 입학에 실패했지만 사진으로의 전환이 내 인생 전부를 바꿔 놓았다. 작은 실패가 나에게 온갖 세상을 경험케 한 큰 축복으로 바뀐 것이다.

일본에서 태어나고 부산에서 유년시절을 보내니 그곳이 고향이요, 중고교를 다닌 인천은 제2의 고향이라면 사진은 나의 영원한 고향이 아니겠는가. ☞

‘K푸드 대명사’ 비빔밥은 최고 건강식

맛 순례 ②

온갖 나물과 지역 특산물 첨가



이병대
본회 고문
전 동아일보·KBS기자
본회 20, 21대 회장

비빔밥은 특별함이 없는 음식이지만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음식이라는 점이 특별하다. 어릴 적 선친을 따라 큰집에서 제사 후 갖가지 제찬으로 비벼 음복하던 제사 밥이라든가, 여름 시골집 평상 위에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에서 뜯어온 열무라든가 각종 채소 위에 밥을 부어 고추장으로 쓱쓱 비벼 함께 먹던 아련한 향수는 어찌 추억의 맛으로만 기억할 수 있겠는가. 비빔밥은 조선 중후기 여러 저서에서 골동반(骨董飯), 혼돈반(混沌飯), 교반(攪飯) 등 ‘여러가지를 섞는다’는 의미의 한자로 표기하다가 ‘비빔다’를 음차한 부비반(桴排飯)으로 진화하여 불리다가 오늘날 비빔밥이 된 것으로 보인다.

비빔밥은 19세기 말 시의전서(是議全書)에 요리방법 등이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서울 시내 한일관에서는 지금도 식단 차림표에 비빔밥을 골동반으로 표기하고 있다. 시간이 벌써 많이 흘렀지만 건강식단에 관심이 많았던 동아일보의 권도홍(權度洪) 선배는 비빔밥을 우리나라 최고의 건강식으로 평가했다. 대한연론에 ‘병은 고칠 수 있다’는 건강 칼럼을 연재하여 큰 호평을 받았던 권 선배는 세계보건기구(WHO)가 뽑은 세계 10대 먹거리를 열거하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건강한 음식이 비빔밥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곤 했다. 언론인들이 많이 찾는 부민옥에서도 비빔밥이 베스트 셀러 식단이다.

그런데 다소 불만스러운 것은 음식점 비빔밥이 거의 대동소이,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삼척각에서 맛본 비빔밥은 좀 특별했다. 정갈하다든가 나물을 아름답고 정연하게 깔고 전복 숙회를 올린다는가 고추장도 맛깔스럽게 담아 시각 뿐 아니라 미각에서도 훌륭했다. 비빔밥은 지역이나 재료에 따라 수많은 종류가 있으나 대충 네 비빔밥으로 나눌 수 있다. 즉 전주비빔밥, 진주비빔밥, 해주비빔밥, 그리고 안동



제사밥이다. 전주, 진주, 해주는 우리나라 주요 곡창지대의 중심 지역으로 일찍이 물산이 풍부해 음식이 발전한 곳이다. 전주, 진주, 해주 비빔밥은 밥 짓는 것부터가 다르다. 전주비빔밥은 쇠머리 고운 물로, 진주비빔밥은 사골국으로 짓고 해주비빔밥은 밥을 돼지기름에 볶아 사용한다.

전주비빔밥은 주재료가 콩나물이고 시금치, 쪽갓, 고사리, 표고버섯, 육회에 청포묵을 올려 고추장으로 비빔다. 진주비빔밥은 음양오행설에 입각하여 5가지나물에 육회를 얹고 다진 쇠고기를 넣어 볶은 고추장을 사용한다. 진주비빔밥은 그 모양이 아름다워 화반(花飯)이란 애칭도 있다.

해주비빔밥은 각종 나물에 닭고기와 계란지단, 해산물이 고명으로 올라간다. 해주비빔밥 역시 모양이 아름다워 교반(交飯)이란 별칭이 있다. 안동 헛제사밥은 제사가 아닌 평상시에 제사상에 올라가는 나물과 고기를 요리하여 고추장이 아닌 간장으로 비비는데 전이나 구운 생선, 산적을 곁들인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비빔밥은 전주비빔밥이다. 그 옛날 전주에 출장가면 아침은 전주 콩나물국으로 해장하고 낮에는 비빔밥을 먹으면서 얼마나 맛있고 즐거웠는지! 회고할수록 행복했던 추억이다. 전주비빔밥은 전주 콩나물국밥과 마찬가지로



콩나물이 맛의 원천이다. 전주 콩나물 맛은 전주의 특별한 물 맛 때문에 다른 지역 콩나물과는 차별화 된다고 한다. 전주 콩나물 생산 마을인 ‘묵샘골’물은 전주시민들의 자랑거리이다. 확인할 길은 없지만 조선조 태조께서도 이 물맛을 칭찬했다는 얘기가 전해진다고 한다.

묵샘골 콩나물의 주 거래처가 전주 남부시장이었다. 따라서 남부시장 중심으로 전주비빔밥이 발전하게 된 것은 당연하다. 1952년 ‘한국집’이 개업하고 잇달아 백송회관, 성미당 등 유명 비빔밥집이 문을 열면서 전주가 비빔밥의 메카로 단번에 올라서게 된다.

진주비빔밥집은 전주에 비해 약 40여년 앞선다. 진주의 ‘천황식당’이 우



조지훈 시인은 ‘이른 봄 얼음을 뚫고 솟는 강미나리, 달래, 물쑥, 두릅, 도라지, 고비, 고사리, 각종 취나물 등’ 생각만 해도 침이 흐른다고 했다.

안동에는 80년 말까지 일월식당이 있었다. 60대 말 할머니가 홀로 운영하는 식당이었는데 전혀 개조하지 않은 옛 기와집이어서 열 사람정도 앉을 크기의 마루와 방 한 칸이 전부였다. 당호가 말하듯 이집의 반찬은 가까운 영양 일월산에서 뜯어온 산채로 채워졌다.

영양 일월산은 안동 주변에서 가장 골이 깊고 높은 산인데 각종 약초와 산나물의 주요 생산지로서 이름난 산이다. 이 집의 산채로 밥을 비비면 산의 향기가 그대로 묻어나는 듯 했다.

전주·진주·해주 비빔밥에 안동 헛제사밥 유명 팝스타 마이클잭슨 내한 공연때 맛보고 “원더풀”

리나라 상업 비빔밥집의 효시이다. 고명 등에 전을 쓰고 깔끔한 게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것 같다.

시인 이어산씨는 ‘진주비빔밥’이란 시에서 ‘사골국에 밥을 짓고 / 시금치 미나리 호박 오이 / 은행 육회 대추 / 황란 황포묵 호두 잣 / 죽순 도라지 숙주 무 / 천년의 맛이 고향처럼 안겨오는 / 예혜 칠보화반이여!’라고 노래하고 있다.

이밖에 비빔밥은 비비는 재료에 따라 이름이 갈리는데 꼬막비빔밥, 명계비빔밥, 육회비빔밥, 회달밥, 산채비빔밥, 열무비빔밥 등 끝이 없다. 특히 요즘 산나물이 건강에 좋다고 사찰 음식을 많이 찾는다. 산나물을 사랑한

요즘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K-푸드의 중심에는 비빔밥이 있다. 비빔밥의 인기는 대단하다. 일본의 경우 중소 도시에서도 비빔밥 간판이 쉽게 발견된다. 작년 말 일본 ‘시코쿠(四國)’의 작은 온천 마을 ‘마쓰야마(松山)’에 갔다가 돌솥비빔밥 집을 발견하고 반가웠던 적도 있다. 비빔밥은 1998년 한국을 방문했던 마이클 잭슨이 먹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KAL은 일찍이 비빔밥을 기내식으로 내놓았고 독일의 ‘루프트한자’도 비빔밥이 기내식이다. 미국의 ‘월마트’나 ‘코스트코’에서 비빔밥 밀키트를 판다. 영양이 많고 조리하기가 간편해 인기다.☞

故 김인규 전 KBS사장 영전에

사람의 죽음은 누구에게나 많은 것을 남긴다. 부모자식 간, 형제자매 간, 직계가족이 겪어야 할 찢힌 슬픔과 이별의 고통이 가장 절실할 것이다. 그러나 고인을 친구로 둔 많은 학교 동문들과 직장 동료와 선·후배, 비슷한 길을 걸어왔거나 무겁게 또는 가볍게 옷깃을 스친 수많은 인연들... 이들 모두의 가슴에도 못단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남기기 마련이다.

고인이 되신 고 김인규 전 KBS 사장과 인연은 지난 1974년 KBS 입사로 시작되었다. 그가 KBS 공채 1기, 나는 2기였으니 한 기, 한 해 선배였다. 그게 벌써 50여 년 전이다. 그 긴 세월 동안 언론인이라는 같은 길, KBS라는 한 울타리 안에서 한술밥을 먹어 온 셈이다. 지방으로, 해외로 근무지가 적잖이 바뀌긴 했지만 워낙 긴 세월을 함께하다 보니 이른바 '미운 정 고운 정'이 오랜 묵은지처럼 쌓일 수밖에 없었다.

구나 '이제 한숨 돌리고 좀 쉬어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나 혼신을 다한 삶을 살아온 그의 열정은 KBS 퇴직 후 더 밝은 빛을 발하게 된다.

경기대학교 총장과 고려대 언론대학원 석좌 교수, 성균관대 초빙교수로서 교정에서, 강단에서 그는 30여 년 언론계에서 쌓은 경륜과 지혜를 후학 양성에 쏟아부었다. 그뿐 아니다. 한국전쟁기념재단 이사장과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회장직을 맡아 역사의 상흔을 지닌 사람들과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들을 보듬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데 앞장서기도 했다.

방송인으로서 빼어난 역량과 리더십을 내보였던 그가 문필가로서 또 다른 천재성을 발휘한 데는 그저 감탄을 쏟아낼 수밖에 없다. 그의 펴낸 『지금 녹음하자는거요?』, 『방송인 김인규의 공영방송특강』 등 5권의 명저들은 방송언론인을 꿈꾸

언론계 30여년 큰별 지다

30여년 평생직장으로 몸담았던 KBS에 그가 남긴 발자국은 너무나 크고 뚜렷하다. 정치부장, 보도국장 등 보도본부 최일선 지휘를 맡았을 때 그와 함께한 후배 기자들은 엄정하면서도 담대한 언론인 선배의 모습을 배울 수 있는 행운을 잡을 수 있었다.

그가 KBS 사장직과 한국방송협회장, 그리고 ABU(아시아태평양방송연맹총회) 회장직을 맡은 시기는 안으로는 KBS, 나라 밖으로는 한국방송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끌어올린 한국 방송계의 황금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리라. KBS 워싱턴 특파원, 뉴욕지국장, 부산총국장, 특임본부장, 뉴미디어본부장 등 그의 발자취 하나하나가 KBS 변혁과 발전의 역사이자 이정표가 되었다.

평생 몸담았던 직장을 떠나면 누

는 후학들의 지침서가 되기에 충분하다. 그가 기고한 매일경제신문 "매경춘추", "세상사는 이야기"와 한국경제신문 칼럼 등은 그의 유려하면서도 날카로운 필력이 유감없이 발휘된 명문으로 남아있다.

누구나 떠나면 남은 사람들에게 그림자를 남긴다. 얕든 깊은 허전함도 함께 안겨준다. '김인규'라는 이름 석 자를 핸드폰에서 지우면서 마음 한구석이 이렇게 뻥한 것은 왜일까? 소중한 그 무엇을 갑자기 잃은 듯한 기분은 무엇일까? 나만 이렇까?

많은 후배·후학들에게 배움과 기쁨, 감사와 존경을 남기고 가신 한국언론계의 거목이자 큰 별이셨던 김선배님!

훌륭, 이제 모든 짐 내려놓으시고 편히 영면하십시오!

심의표(본회회원·전 KBS부산방송총국장)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유자효 회우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93 (신천동)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110동 1006호

김사모 회우 서울 관악구 장군봉6길 3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김인규 회우
(전 KBS 사장)
2월3일 별세
향년 75세



정건일 회우
(전 KBS, 한국프로축구협회 사무총장)
2월22일 별세,향년 81세

김기원 회우
(전 대한언론인회 감사)
2월22일 상배

연회비 감사합니다

연회비 납부 : <2025.1.26 ~ 2026.2.24>

<괄호 안은 연도, 단위 ; 원>

■ 연회비: 30,000원 ■ 평생회비: 300,000원

계좌 번호 : 농협 056-01-105628

예금주 대한언론인회

회비

나용경(2026) 30,000 백승대(2026) 30,000

심의표(2026) 30,000 성재삼(2026-2027) 60,000

윤홍섭(2026) 30,000 이성준(평생회비)300,000

이규섭(2026) 30,000 정병철(2026) 30,000

회우동정

국보문인협회 고문 위촉



장석영 본회 명예회장(시인, 수필가)이 지난 1월 1일자로 사단법인 한국국보문인협회 및 월간 국보문학 고문으로 위촉됐다.

삼강문학 고문 첫 시집 출간



황병주 시인(본회 명예회원, 꿈을 주는 과일재단 명예이사장.삼강문학 고문)은 지난달27

일 구순을 맞아 첫 시집 《나의 인생길》을 펴냈다. 이날 출간 기념식에는 이민섭 본회 자문위원(전 문체부장관,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 장석영 본회 명예회장(삼강문학회장) 등 원로 언론인 10여명이 참석해 축하했다.

연회비는 회원의 자존심입니다.



만보회 서대문 홍제폭포에서 시보제

대한언론인회 만보회(회장 최귀조)는 화창한 날씨 속 지난 22일 서대문구 홍제폭포에서 많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무사 건기를 기원하는 제3회 병오년 시보제 행사를 가졌다.

이날 최귀조 회장은 인사말로 건기를 통해 화목과 단결 그리고 따뜻한 사랑을 품고 노년을 건강하게 보내자고 격려했다. 이어 박종서 대한언론인회 사무총장이 시보제 축문을 낭독했으며 회원들은 봄이 오는 길목에서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참석회원은 강두모 김기원 김사모

김윤찬 김조영 김홍운 박교원 박원배 박종서 설임윤 안종우 안홍렬 장욱 조명동 조희곤 최귀조 최영배

월간 대한언론 Korea Journal

- 발행인 겸 편집인 이 종 세
- 주 필 이 도 선
- 편집위원장·이사 이 재 호
- 사무총장·상임이사 박 종 서
- 편집국장 송 창 기
- 발행처 (우) 04520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1405호
- 등록번호 서울 라 12013
- Email : kjc1405@kjclub.or.kr
- 홈페이지 : www.kjclub.or.kr
- ☎ 02)732-4797/4798
- 02)2001-7621
- Fax 02)730-1270

2025-2026

강원 방문의 해

VISIT GANGWON



강원특별자치도

튼튼하게
탄탄하게
든든하게

튼튼 탄탄 든든 하게
K·스포츠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K·스포츠 컨트롤 타워
올림픽회관

국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K·스포츠 크리에이터

스포츠와 문화, 교육과 산업을 융합한 창의적인 K·스포츠로
KSPO가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스포츠 사업을
탄탄하게



스포츠 재정을
든든하게

• 스포츠 복지 • 스포츠 산업 • 올림픽 유산 • 체육인재 육성/지원 • 기금조성사업 • KSPO스포츠단

KSPO 국민체육진흥공단